

2016학년도

석사학위청구논문

길선주 목사의 생애와 사역: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박 양 수

길선주 목사의 생애와 사역: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

지도교수 박 용 규

이 논문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11월 23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학과 역사신학전공

박 양 수

박양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정 원 래 (인)

심사위원 박 용 규 (인)

심사위원 김 요 섭 (인)

2016년 11월 23일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논문제출자	대학원명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석사과정	
	전 공	역사신학	학번	2015301026	성명	박양수
논문제목	국 문	길선주 목사의 생애와 사역: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				

본인은 총신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타인에게 대필의뢰, 타 논문의 표절, 데이터 및 결과제시의 왜곡과 변조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본교에서 정한 연구윤리 관련 지침을 준수하였습니다. 만약 연구부정행위가 밝혀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16년 11월 24일

서약자 : 박양수 (서명)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장 귀하

감사의 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의 역사는 물론이거니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생애를 연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쓰는 동안 임신과 육아로 홀로 고생하면서도 남편을 위해 걱려를 잊지 않았던 아내 박지애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와 방법	2
II. 길선주 목사의 생애	3
1. 출생부터 선도에 매진하기까지	3
2. 회심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7
3. 부흥운동가로부터 민족운동가에 이르기까지	11
4. 옥중생활부터 마지막 눈감는 날까지	14
III. 부흥운동가 길선주 목사	18
1. 길선주 목사가 인도한 집회	19
1) 1928년 이전의 집회	20
(1) 평양에서의 집회	20
(2) 서울에서의 집회	27
(3) 그 외 지역에서의 집회	29
2) 1928년 이후의 집회	31
(1) 평양에서의 집회	32
(2) 서울에서의 집회	33
(3) 그 외 지역에서의 집회	33
2. 길선주 목사의 집회가 교회와 지역 사회에 미친 영향	36
1) 개교회의 성장	36
(1) 장대현교회의 성장	36
(2) 연동교회의 성장	37
2) 평안도 지역의 교회 성장	37
3) 전국적인 교회의 성장	38
3. 길선주의 목사의 집회, 그 성격과 평가	38

IV. 설교가 길선주 목사	41
1. 길선주 목사의 설교	42
1) 십자가상 주의 칠언 7	42
(1) 설교문	42
(2) 설교 분석	43
2) 최귀(最貴)한 생명	44
(1) 설교문	44
(2) 설교 분석	46
3) 순간득구(瞬間得求): 구원에 필요한 5대 요소	47
(1) 설교문	47
(2) 설교 분석	49
2. 길선주 목사의 설교 평가	50
3. 설교가 길선주 목사가 당대에 미친 영향	50
V. 민족운동가 길선주 목사	52
1. 길선주 목사의 계몽운동	52
1) 문화 변혁과 생활 개선	52
2) 교육사업 및 사회사업	56
2. 길선주 목사의 애국운동	62
3. 길선주의 목사의 민족운동, 그 성격과 평가	65
VI. 결론	67
참고문헌	69

표 목차

표 1: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일정표(1907년 1월)	23
표 2: 길선주 목사가 1922-1928년까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	26
표 3: 길선주 목사가 1922-1928년까지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	31
표 4: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	32
표 5: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서울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	33
표 6: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	33
표 7: 북장로교 전체 교세 증가율	38
표 8: 부흥운동 기간 평양 지역 학교의 증가	57
표 9: 장대현교회에서 펼친 길선주 목사의 교육사업	60
표 10: 學部에서 調査한 全國 學校 數(1910年 7月 1日 現在)	61

I. 서론

1. 연구 목적

부흥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다.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부흥을 이끌었다면, 미국 1차 대각성운동의 중심에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휫필드가 있었으며, 2차 대각성 운동에는 “19세기 첫 반세기 동안 미국 복음전도자들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인물”¹⁾이라 불렸던 찰스 피니가 있었다. 그리고 1907년 한반도 전역을 휩쓸며 “한국의 오순절”²⁾이라고도 불렸던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길선주가 있었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길선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양대부흥운동이 길선주의 생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길선주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³⁾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평양대부흥운동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그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 운동의 전후 시대적 배경은 물론 근원이 되는 여러 사건들까지 세세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또한,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여러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연구⁴⁾도 무수히 많이 수행되어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사역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정작 평양대부흥운동의 시작부터 함께하며 이 운동을 이끌고 나갔던 길선주 목사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아직도 세세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뿐만 아니라 길선주는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부흥을 선도하며 교회와 사회를 지속적으로 섬긴 장본인이기에 그의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추적하는 것은 그의 생애를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길선주 목사의 생애를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네 부분(출생부터 선도에 매진하기까지, 회심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부흥운동가로부터 민족운동가에 이르기까지, 옥중 생활로부터 마지막 눈감는 날까지)으로 나누어 조망할 것이다. 각각의 부분은 길선주 목사의 생

1) Phillip A. Scharpf, *History of Evangelism: Three Hundred Years of Evangelism in Germany, Great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7;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433에서 재인용.

2) 방위량 선교사의 표현.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858.

3)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韓國教會史學會誌』 第 21 輯 (2007), 155.

4) 대표적인 인물로 주기철 목사와 손양원 목사를 꼽을 수 있다.

애에 있어서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며 또한 그의 사역과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이기에 그의 생애를 보다 더 역동적으로 살필 수 있다.

또한, 길선주 목사가 평양대부흥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부흥운동가로, 설교가로, 그리고 민족운동가로 수행해왔던 그의 사역을 추적하며 그 영향력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얼마나, 또 어떻게 확대 되었는지 살피고자 한다. 왜냐하면 부흥운동가와 설교가, 그리고 민족운동가로서의 길선주 목사의 삶과 사역이 그를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길선주 목사의 연구는 대체로 부흥운동가면 부흥운동가로, 설교가면 설교가로, 민족운동가면 민족운동가로만 한 주제에 국한하여 진행되었다. 각각의 연구 모두, 길선주 목사의 사역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큰 기여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라는 길선주 목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그의 생애와 사역을 보다 더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길선주 목사는 장로교 목사이기에 그가 비록 평양대부흥의 주역으로 교파와 교단을 넘어 쓰임 받기는 했지만 그의 주된 활동 범위는 장로교회 안이었고, 또한 평양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주된 사역을 감당했기에 장로교와 평양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물론, 장로교 외에 다른 교파와 교단에 끼친 영향을 추적하였지만 제한적인 역사 사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고, 평양을 넘어서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하긴 하였으나 그 역시 연구의 미진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가 끼친 영향이 한반도 전체에 나타나기에 사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관련된 기록은 모두 언급하였다.

길선주 목사의 생애와 부흥운동가, 민족운동가로서의 그의 사역을 집중 조명함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전체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순차적으로 서술하였다. 다만, 설교가 길선주 목사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현대적인 언어로 정리된 설교문 가운데 필자가 판단하여 설교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세 편의 설교문을 선택하여 연구하였다.

II. 길선주 목사의 생애

부흥운동가, 민족운동가, 설교가로서의 길선주 목사의 사역과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생애를 소상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의 사역과 활동은 길선주 목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길선주 목사의 생애에 관하여 선행 연구된 자료로는 길선주 목사의 아들인 길진경이 저술한 『영계 길선주』⁵⁾와 부분적으로 다루긴 하였으나 여러 논문⁶⁾들이 길선주 목사의 생애를 직간접 적으로 추적하였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 사료를 바탕으로 기록했다⁷⁾고는 하나 부친의 생애를 다루었기 때문에 객관성과 다양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후자의 경우는 논문의 주제에 맞추어 생애를 조명하다보니 포괄성이 결여되는 측면이 있다⁸⁾ 따라서 본 장에서는 길선주 목사의 생애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포괄적으로 조망하면서 여러 사료를 비교·대조하여 객관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출생부터 선도에 매진하기까지

길선주⁸⁾는 1869년 9월 15일 평안남도 안주군 후장동에서 길봉순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⁹⁾ 길씨 가문은 성균관 박사 길재의 후손으로서 나라와 사회에 이바지할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 심신 단련과 인격 수양에 힘쓰는 가풍을 갖고 있었다. 특별히 한학에 조예가 있었던 길선주의 어머니는 정숙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엄격했다. 길선주는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네 살이 되던 해부터 한문을 배우기 시작했고, 일곱 살이 되던 해에는 명망 있는 학자의 문하생으로 들어가서 한학(漢學)을 공부했다.¹⁰⁾

길선주는 어려서부터 “걸출한 골격”¹¹⁾을 갖추었으며 총명함을 보이며 또래 아이들에 비해

5) 길진경의 『영계 길선주』가 출간된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길진경에 의해 『길선주』(서울: 두란노, 2007)가 출간되었다. 그러나 이 저술은 『영계 길선주』에 비하여 내용이 많이 생략되었으며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읽기 쉽게 편집되어 있다.

6) 정성구, “한국교회 설교사(VII) 한국교회와 설교운동-길선주, 김익두, 이성봉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51(2), (1984. 6), 140-177;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5집 (1966), 57-95; 장병일, “부흥운동의 횃불-길선주 목사,” 「기독교사상」 10(11), (1966), 68-75; 이현웅,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길선주 목사의 삶과 설교,” 「신학사상」 137호 (2007, 여름), 289-325;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1869-1935)의 민족주의,” 「선교신학」 제13집, 157-176.

7) 길진경, 『영계 길선주』(서울: 종로서적, 1980), 8.

8) 字는 윤열이고, 號는 영계이다.

9) 장병일, “부흥운동의 횃불-길선주 목사,” 「기독교사상」 10(11), (1966), 68.

10)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서울: 두란노, 2007), 12.

11) 장병일, “부흥운동의 횃불-길선주 목사,” 69.

탁월함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막내 아들이었던 길선주는 어머니 곁에서 틈틈이 조선의 역사와 사회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기에 어린 나이임에도 상당한 식견을 소유하게 되었다.¹²⁾

길선주는 그가 열한 살이 되던 해에 같은 안주 출신의 열여섯 살 난 신선행과 결혼을 한다.¹³⁾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리게 된 길선주와 신선행은 행복한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는 이 해심 많은 길선주의 어머니 역할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대부분의 가정이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시기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결코 가볍거나 가까울 수 없었다. 그러나 길선주의 어머니는 조선시대 일반적인 시어머니상과는 달리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¹⁴⁾

길선주는 어려서부터 글에 대한 재능을 어김없이 보여주었다. 그의 나이 열두 살 때에는 <일은 아니 하는데 옷상자에 옷이 가득하네>라는 시구를 지어 한문 글방에서 장원을 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시를 지어 세상에 시 짓는 재주를 알리며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¹⁵⁾

어려서부터 학문을 부지런히 연마한 길선주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안주 본부 초인직¹⁶⁾에서 근무하게 된다.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맡은 일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매사에 정직하게 행했기에 착실하고 근면한 일꾼으로 인정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는 보통 남성들과는 다르게 환락에 빠져기녀들의 몸을 범한 일이 없을 정도로 바른 생활을 해나갔는데 이것은 가정에서 받은 영향에서 기인한다. 길선주의 아버지는 기생을 첩으로 두었었는데 이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길선주는 어려서부터 봐왔던 것이다.¹⁷⁾

길선주가 열여섯이 되던 해(1884)에는 상서호¹⁸⁾에 있는 장 선생이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계속하여 한학(漢學)을 이어가게 된다. 길선주는 가난한 환경과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간다. 그 결과 조금씩 시대의 흐름을 읽어 가며 앞일을 대비해 갈 수 있었던 것이다.¹⁹⁾

그런데 이 때 길선주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무위도식하던 불량배 윤학영 삼형제

12)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2-13.

13) 당시 사회는 총각이 사춘기가 지나서까지 장가가지 않거나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면, 가정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사회에서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 낙오자 취급을 받았기에, 부모들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때가 되면 시집, 장가를 보낸 것이다.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3.

14)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3-14.

15)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5-16.

16) 공식 부서의 하나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람을 부르는 직책.

17)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6-17.

18) 향교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상서는 주나라에서는 향교를 상, 은나라에서는 서라고 부른 데에서 유래한다.

19)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7.

가 한밤중에 길선주의 집을 급습하여 집안에 기물을 다 부수고 길선주를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들은 길선주의 형을 시기하던 무리였는데 악한 마음을 품고 아무 잘못도 없는 길선주에게 몹쓸 짓을 하였다. 길선주의 부친은 분노를 참으며 가족들을 데리고 평양으로 이주했다.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길선주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사회가 부패했다 해도 선(善)이 세상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 길선주는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세상에서의 삶에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는 공직에서 사직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정을 책임지고 집안 살림을 꾸려나가야 했기에 평양 거상 이재경의 점포에서 1년 동안 상도를 배운 후에 상점을 냈다. 이때가 그의 나이 열여덟이었다.²⁰⁾ 그러나 상점을 운영함으로써 가난을 극복하며 무너진 가정을 세우려 했던 길선주는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다가 쓰고는 값지 않은 친 형의 만행을 비롯하여 물건 값을 떼먹고 달아난 여러 장사치들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어 결국 상점을 닫고 말았다.²¹⁾

큰 아픔과 실패를 거듭하며 삶에 대한 회의가 심해져만 가던 길선주는 마을 불량배들에게 두들겨 맞은 후유증이 악화되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날이 가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던 길선주는 부모의 극진한 정성과 아내의 위로로 차차 회복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인간 사회에 대한 환멸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었다. 결국 길선주는 도를 닦아 참세상을 맛보며 보람 있게 살아볼 요량으로 관성교²²⁾에 몰두하기 시작한다.²³⁾ 그는 관성교에 심취하여 주문을 외우던 중 환상을 경험하여 그 인도를 받아 기이한 과정을 통하여 함경도에 사는 김순호(당호²⁴⁾는 창일)를 만나 ‘산신 차력’ 주문을 배우게 된다. 길선주는 며칠 뒤 대성산 두타사에 올라 동쪽에 있는 조용한 방 하나를 얻어 그곳에 들어가서 밤낮으로 산신차력 주문을 외우기 시작한다. 효험을 체험한 그는 희망을 품고 일주일 동안 계속 주문을 외우게 되는데 이 때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더욱 선도에 심취하게 된다.²⁵⁾

20)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9.

21)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9. 장병일의 「부흥운동의 췌발-길선주 목사」, 69 에서는 어릴 때부터 시달리던 가난 때문에 17세에 돈을 벌어보기 위해 장돌림 행상을 했다가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 맞는 것 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더 소상하게 조사해 볼 필요성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장돌림 행상도 뜻 대로 되지 않자 염세주의자가 되어 술과 담배와 여자에 빠져 한동안 타락의 가도를 달렸다고 하는데 길진경의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산간에서 선도를 공부하고 있을 때 선도를 배우러 온 한 젊은 여자에게서 욕정을 느껴 순결을 잃었다고 하는 기록(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31)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도 다른 자료들과 상통하지 않아 더 많은 사료를 토대로 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2) 중국의 관우, 유비, 장비, 제갈량을 숭배하는 종교.

23)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0-22.

24) 훌륭하게 도를 닦은 중에게 법사가 지어주는 이름.

25)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2-25.

이후 길선주는 평양에 사는 장득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옥경의 ‘구령삼정주송법’과 ‘삼령 주문’을 배워 선도 수련에 혼신의 힘을 쏟기 시작한다. 그의 나이 스물한 살이 되었을 때 길선주는 산속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그 주문을 몇 십만 번이나 송독하며 끊임없이 옥경을 연구하고 주문을 외웠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길선주는 기이한 체험을 하는 것은 물론, 병약하던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마음에 번민과 슬픔이 남아있었다. 왜냐하면 영생의 진리를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길선주는 포기하지 않고 아직 이루지 못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선도 수행에 전념한다. 그의 나의 스물 세 살의 일이다.²⁶⁾

길선주는 선도를 수련하면서 지속적으로 체력 단련에 매진했다. 또한 건강 서적들을 많이 읽고 스스로 약을 지어 복용해가며 끊임없이 몸을 관리하였는데 그 결과 사람들이 그를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도로 심신을 단련해 오던 길선주는 자신의 뜻을 세상에 펼쳐보이고자 본격적으로 선도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다. 선도에 통달하고 차력에 성공한 길선주를 본 사람들은 그를 “길 장수,” “길 도인”이라 부르며 그를 따랐다.²⁷⁾

선도에 있어 상당한 수준에 이르게 된 길선주는 누구를 막론하고, 도가 깊은 인사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했다. 그러던 중, 1983년 어느 봄날 길선주는 마침내 마포삼열²⁸⁾ 선교사의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²⁹⁾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는 소문을 듣고 관심이 생긴 것이다. 도를 닦는 도인으로서 서양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려 했던 그는 마포삼열과의 첫 만남에서는 특별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교리와 더불어 인간의 영생 문제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김종섭을 마포삼열에게 보냈다.³⁰⁾

1년 후인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했다. 피난길에 오른 길선주는 국제 분쟁으로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아무 도움을 줄수 없는 무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1년 이상 성천 영대산에 은거하며 도교를 가르치고 수행했지만 그 한계³¹⁾를 절감하게 된다.

26)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5-27.

27)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8-30.

28) 마페트(Samuel Austin Moffet, 馬布三悅, 1864-1939)는 인디애나 주 매디슨에서 태어나 하노버대학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했으며 시카고 맥코믹신학교를 졸업하고 1890년 1월 한국에 파송되어 왔다. 1891년 게일과 함께 서울에서 의주를 거쳐 만주 심양의 로스(로스 John Ross)를 방문하고 함흥과 원산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그는 네비우스 방법의 변형은 3차 정책과 토착화 정책을 조합한 로스 방법을 적용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널다리골교회이다.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서울홍성사, 2009), 180.

29)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43.

30) 길진경, 『영계 길선주』, 44-45.

31) 도교가 개인의 영성에는 도움이 되나 민족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미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25

2. 회심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1896년 봄, 피난 생활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길선주는 깜짝 놀라게 된다. 절친한 친구이자 함께 선도의 길을 걷던 김종섭이 예수교인이 된 것이었다.³²⁾

길선주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기에 함께 도를 닦던 친구가 회심을 했는지 궁금하여 1895년 중국 성서공회 탁인판 중국어 관주신약성경을 구해서 기독교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한다.³³⁾

이후 김종섭은 끊임없이 길선주를 찾아와서 매일같이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 그 과정에서 김종섭은 길선주에게 『그리스도인신문』과 각종 신앙서적들(『이선생전』, 『장원양 위상론찬』, 『로역정』)을 가져다주었다.³⁴⁾ 그 가운데 『천로역정』은 길선주의 관심을 끌었고 『천로역정』을 통해 길선주는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깊은 밤과 이른 밤 새벽마다 진리를 갈망하며 예수가 진정 참된 구세주인지를 묻는 순수한 기도를 드렸다. 아래의 내용은 게일이 기록한 길선주의 고백이다.

점차 나는 그렇게 완강히 붙잡고 있던 밧줄을 놓기 시작했고 밧줄은 한 가닥씩 풀렸으며, 내 영혼은 심연 위의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이어 상실의 늪 속으로 빠져들었는데, 그 고뇌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었다. 일곱째 되던 날 지치고 절망한 나는 반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나는 갑자기 “길선주야!”라고 크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고, 그 소리는 반복해서 울렸다. 어리둥절한 채로 일어나 앉아 있는데 내 앞에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 방 자체가 변형되었고 영광스러운 빛이 내 주변을 환하게 비추었다. 내 영혼에 안식과 용서와 애정이 자리 잡았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이를 증명했다. 지금 와서 뒤돌아보면 이렇게 말 할 수 있다. “오, 얼마나 기뻐했는가!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수년 간 고뇌하며 찾았던 하나님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 죄 사함을 받고 용서받은 자가 되어 마음이 편했다.”³⁵⁾

길선주의 기도는 신비한 중생의 체험이었다. 그는 베드로야 고보, 요한이 경험했던 변화산 체험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기적적인 경험³⁶⁾과 유사한 경험을 한 것이다.³⁷⁾

(1966), 70-71.

32)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1.

33)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46.

34)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54-58.

35) James S. Gale, *Elder Kil*, MRW (July, 1907), 494;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2에서 재인용.

36) 그는 이 신비한 체험 후에 좋지 않던 시력이 더 나빠져서 거의 맹인이 되고 말았다. 옥

다음 날 아침(주일) 길선주는 김중섭과 함께 널다리골 예배당에서 진행되는 아침 예배(성경공부)에 참여했다. 그리고 마침내 1897년, 길선주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평양성 널다리골교회에서 28명의 교인들과 함께 이길함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후 제일 먼저 상투를 잘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길선주는 회심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부인까지 전도하여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다.³⁸⁾

이듬해인 1898년 봄, 길선주는 널다리골교회의 영수로 임명을 받았다. 교회의 영수로서 펼쳐나간 그의 사역을 통하여 널다리골 교회는 예배와 전도, 성경 공부와 기도생활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인 변화를 거듭하게 된다.³⁹⁾ 그가 세운 실천 계획은 아래와 같다.⁴⁰⁾

*전도 사업

1. 개인 전도를 장려하고, 성도 각자가 최소한 한 명을 교회에 인도하는 성도 배가 운동을 장려할 것.
2. 구역을 분할하고, 심방대를 조직해서 가정 방문을 장려할 것.
3. 여성 교회를 설립하고, 가정 개방 운동을 추진할 것.
4. 여성도 전도대를 조직해 각 가정에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할 것.
5. 전도대회를 1년에 한 차례씩 개최해서 성도들의 활기를 높이고 복음운동의 불을 일으킬 것.

*교육 사업

1. 시대적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주간학교를 설립하여 지도자를 양성할 것.
2. 극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야간학교를 설립할 것.

*문맹 퇴치 운동

1. 성인 야간학교를 설립해서 한글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
2. 교인들의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기간 성경 야학과 계절 사경회를 개최할 것.

길선주는 조선 사회 깊숙이 자리한 폐습을 과감하게 뿌리 뽑았다. 유교 관례에 따라 부모가 상을 당했을 때 집 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일가친척까지 상복을 입어야 하는 풍속을 끊어내기 위해서 부친상을 당했을 때 상복을 입지 않고 평상복에 상표(喪標)만 달고

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3.

37)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2-73.

38)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65-70.

39)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3.

40)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76-78.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이끄는 무리한 제사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제사 대신 고인을 기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⁴¹⁾

1902년 길선주는 교회로부터 조사 취임을 요청받았다. 조사 취임은 목사가 되는 것을 전제로 했기에 그가 경영하고 있던 약국을 정리해야 했다. 당시 약국의 수입이 월80원이었고, 조사의 사례는 6원이었는데 가장으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그로서는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때, 길선주는 부인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일생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기로 최종결단을 내렸고, 마침내 장대현교회의 조사 겸 황해도와 평안도 개도의 도조사에 취임하게 된다.⁴²⁾

1903년 봄마침내 길선주는 조선 최초로 세워진 평양신학교⁴³⁾에 입학한다. 그는 신학교에서 전보다 몇 배의 정열을 쏟아 기독교의 진리를 탐구했다.⁴⁴⁾

1909년, 길선주는 개인의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에 커다란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박치록 장로와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했다.⁴⁵⁾ 평양대부흥운동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위기를 느낀 그는 다시 한 번 그와 같은 대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며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⁴⁶⁾ 1909년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새벽기도회는 한반도 전역의 교회로 확대되었다. 1910년 하반기에 이르러 부흥회와 전도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새벽기도회가 중요한 순서로 포함된 것이다.⁴⁷⁾

길선주는 그의 나이 서른세 살에 평양성 장로교회의 장로에 피택된다. 그는 우리말이 서툰 당회장 선교사들을 대신하여 강단을 맡아 설교를 하며 은혜 넘치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을 감동시켰다.⁴⁸⁾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던 1907년 6월 19일 장대현교회의 뜰에서 평양신학교

41)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82-83.

42)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98-101.

43) 평양신학교의 신학 교육은 맥코믹 출신 선교사들과 프린스턴 출신 선교사들 의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에 길선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충실한 보수적인 영향과 북미와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및 부흥운동에 대한 영향을 모두 받게 되었다. 박용규, 『한국교회사 1』, 468-475.

44)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21.

45)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75-81. 대부분의 자료에서 길선주 목사와 박치록 장로가 시작했던 새벽기도회를 1906년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김인서 목사가 길선주의 전기를 쓰면서 범한 오류를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교회의 첫 새벽기도회는 1898년 황해도의 수안군 강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에서 초보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4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1), 563-564.

4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565.

48)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29-130.

제1회 졸업식이 거행되었다. 그리고 1907년 9월 17일, 장대현교회 예배당에서 마포삼열 선교사와 조선 교회 대표 장로들은 신학교 졸업생 일곱 명을 목사로 장립했다. 장대현교회는 그 자리에서 길선주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했다. 그가 장대현교회의 담임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노회의 부서를 정비하여 교회 정화를 꾀한 것이다. 또한, 교회들을 보살피는 차원에서 시찰 위원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있으니 바로 교회를 성경의 진리 위에 세우는 것이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말씀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길선주 목사는 한문으로 된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구해 읽으며 성경을 깊이 해석하여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다.⁴⁹⁾ 게일 선교사는 길선주 목사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⁵⁰⁾

그는 비록 말할 만한 시력, 돈, 사회적 지위도 없고 과학적 교육을 받지 않았고 그리스도어나 히브리어를 모르고 넓은 세계에 대한 지식이 없지만, 즐거이 생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살고 노력한다. 교양 있고 세련되고 부자유 지혜롭고 모든 종류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의 계단 바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앉아서 영광의 희미한 모습만 바라보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의 불분명한 속삭임만 듣고 있을 때, 그는 맹목적인 애처로운 도교적 추구하고 굶주린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께 갚으나즉 시 '하나님의 존전내실 까지 깊 이한 내 되었다.

길선주의 영성을 선교사들의 영성보다 더 깊고 탁월하다고 인정한 것을 볼 때, 목사로서 길선주의 역량은 실로 대단했다고 할 수 있다. 게일은 길선주의 설교를 “혀에서 멈추거나 더듬는 적이 전혀 없고 부드러움, 자신감, 직접성의 놀라운 메시지”라고 칭송했다. 게일은 길선주를 영적 지도자로 존경했는데 이것은 1911년 자신의 아들 조지의 유아세례를 선교사가 아닌 길선주 목사에게 부탁한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⁵¹⁾

안수 받은 한국인 목회자 길선주의 설교는 한국 사람들의 심령을 깨어나가기 시작했고, 그가 뿌린 말씀의 씨앗들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갔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강력한 역사가 바로 평양대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다.⁵²⁾

49)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62-168.

50) J. S. Gale, *Elder Keel*, 495;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86에서 재인용.

51) Gale, *The Baptism of Georgie, Woman's Work for Woman* (Nov., 1911), 243-244;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87에서 재인용.

52)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87.

3. 부흥운동가로부터 민족운동가에 이르기까지

평양부흥운동은 1907년 1월 2일 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진행된 겨울 남자 사경회(the winter Bible Training class for men)로부터 시작되었다.⁵³⁾ 시간이 지나면서 집회의 열기는 점점 달아올랐고, 마침내 1월 14일(月)과 15일(火) 저녁집회 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했다. 이 때 그 중심에 길선주가 있었다. 길선주가 회개의 고백을 촉구하자 회중 가운데 회개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던 것이다.⁵⁴⁾

사경회 기간 동안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사경회를 마치고 찾아온 첫 번째 주일인 1월 20일 오후예배에서 계속되어 나타났다. 여기서도 길선주는 능력 있는 설교로 회중들로 하여금 회개를 쏟아내며 은혜를 사모하게 만들었다.⁵⁵⁾

1907년 1월의 놀라운 평양의 부흥이 있고 한 달 뒤인 2월 15일부터 길선주 목사는 송동교회에서 열린 서울장로교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게 된다.⁵⁶⁾ 평양에서 있었던 부흥의 소식을 들은 서울의 교회가 길선주를 집회 강사로 초청하자 그는 그것을 성령의 부르심으로 알고 흔쾌히 수락한 것이다.⁵⁷⁾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는 38세의 젊은 부흥사”⁵⁸⁾ 길선주의 설교는 첫날부터 강력한 역사를 일으키며 성도들을 감동시키기 시작했다.⁵⁹⁾

길선주의 설교는 대단한 권능을 지니고 있었다. 한 선교사의 고백은 길선주의 설교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⁶⁰⁾

1907년 한국의 대부흥운동 때에 길 목사는 평양과 다른 선교부 모두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지라도 그의 설교를 들었는데,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청중들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국적의 사람을 짐체 들어보지 못했다. 그의 음성은 달콤하고 그의 예절은 사람을 사로잡았으며, 그리고 그의 놀라운 설득력을 가지고 심령에 호소해, 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막 웃다가 울다가 엄청난 죄의 확신으로 전율하였다.

53)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07-208.

54)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31.

55)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53.

5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04.

57) Jones, *The Korea Revival*, 30;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214;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01에서 재인용.

58)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01.

59) 옥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89.

60) “*Kil Moxa*,” *KMF VII* : 5(jun., 1910), 118;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05에서 재인용.

1907년 1월 22일 길선주는 평북 의주 서부교회 부흥회에 초청되어 집회를 인도했는데 현장에서 13세의 소학교 학생(훗날 목사가 된다)이 회중 앞에서 회심하는 일과 그 지역 유지였던 김덕창이 크게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고 훗날 장로가 된 것으로 기록된다.⁶¹⁾

1908년 1월 20일, 길선주는 압록강 연안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는 평안북도 용천교회를 시작으로 의주, 강계, 초산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했고 그 결과 압록강 연안 일대의 교회는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⁶²⁾

1910년 7월 재령 선교부의 주최로 열린 특별 부흥회와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길선주 목사를 통해 1월 동안 무려 353명이 결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 때 선포된 길선주의 설교는 회중을 사로잡는 능력의 메시지였다.⁶³⁾

1910년 9월 19일 에 열린 제4회 노회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당선된 길선주는 전도국장까지 겸하며 백만명구령운동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하게 된다. 그는 10월에는 안동에서⁶⁴⁾ 11월에는 대구에서⁶⁵⁾ 전도 집회를 이끌며 부흥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⁶⁶⁾ 동년에 길선주는 경북 영천에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감시하러 그곳에 온 일본 형사 두 사람은 예배 후에 길선주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허리에 찬 칼을 반환하고 형사직을 사직하는 일이 있었다.⁶⁷⁾

도교와 선도에 심취했던 길선주는 중국문화의 발생지이자 공자와 맹자의 출생지인 산둥성 선교를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 그는 이 일을 진행해나감에 있어서 먼저 제주도 선교를 제의했고, 그 결과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되었다.⁶⁸⁾ 때가 흘러 일본이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함으로써 군벌탄압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길선주는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한국 기독교의 존재와 그 활동을 만천하에 알리고, 교회의 젊은이들을 외국으로 유학시켜 국제무대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산둥성 선교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다. 우여 곡절 끝에 1913년, 한국 장로교는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61) 서정민,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253-254;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167-168에서 재인용.

62)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74-175.

63) “Notes from the Stations,” *KMF VI*: 9(Sep., 1910), 218-219; 박용규, 『평양대 부흥운동』, 662-663.

64) 길선주가 인도했던 안동 부흥회 결과 그 교회는 당시 그 교회 교인들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은 98명이 결신하게 되었다.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27.

65) 대구에서 있었던 전도 집회에서는 무려 500명이라는 결신자가 나왔다.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70.

66)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70.

67) 길진경은 형사들의 부인들도 같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기록하고 있다.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80.

68)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68.

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그의 성품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겠다.⁶⁹⁾

길선주는 처음부터 민족운동이나 독립투쟁을 목표삼아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어지러운 이 시대 이 민족을 구원할 종교는 무엇이며 참구세주는 누구인지 찾아 헤매던 사람이었다. 더욱이 그는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첫째 아들 진형을 주님 품으로 보내고 말았다.⁷⁰⁾ 합방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민족의 문화는 점점 어지러워지고 민족의 정신은 혼탁해져만 갔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했다. 이러한 상황을 읽은 길선주는 평양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3·1 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한다. 평양지역에서의 기독교계의 3·1 운동은 이승훈을 중심으로 하여 길선주, 안세환, 임치정, 변인서 등 105인 사건 관련자들과 평양 숭실학교 출신들이 두드러지게 활약했다. 3·1 운동의 시발이 된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의 사전 계획과 노선합작, 그리고 각 민족세력 간 제휴 과정을 정리한 일제의 관변 문서에 따르면⁷¹⁾ 평양과 서북지역 기독교 세력은 상해 주재 선우혁이 1919년 2월 초 잠입하여 선천의 양전백 목사, 정주의 이승훈 장로, 평양의 길선주 목사 등을 만나 그들을 중심으로 이 일을 조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⁷²⁾

길선주의 집은 옛날 관사로 대지가 300여 평이나 되는 넓은 집이었다. 그는 1919년 2월 21일 장연읍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생일을 핑계 삼아 승의여학교 기숙생들을 모두 집으로 초청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다. 또한, 그의 집본채에서 30미터쯤 떨어진 곳에는 정원과 가사를 돕는 일꾼들이 사는 네 칸짜리 별채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⁷³⁾

기미년 2월 1일 인사동의 태화관에 집결한 민족대표들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만세삼창을 불렀다같은 시각,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는 한영신 권사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교회 마당에 높이 게양했다. 그 태극기는 길선주가 교회 지붕에 몰래 감추어 둔 것이었다.

69)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81-182.

70)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88-191.

71)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170-171. 그러나 길선주의 3·1운동 참여가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거사 당일에 있었던 민족대표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 체포구금 후에 있었던 재판의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후회하고, 이후에는 종교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발언셋 셋째, 방 후 길선주는 종교활동에만 전념했다는 것이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4장에서 다룰 것이다.

72)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170.

73)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97.

3·1 운동이 전국각처에서 일제히 일어났으나 일제의 무력 탄압앞에서 기세는 꺾이고 말았다. 만세 시위대는 강제 해산되고 민족대표는 수감되었다. 그런데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듯 황량한 서울에 뒤늦게 길선주가 도착했다. 5월 1일 장연읍교회에서 사경회를 마치고 3·1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서둘러 온 것이었다. 부흥회로 인하여 시간을 맞추지 못한 그였지만 그는 의연하게 총독부로 가서 본인이 민족대표 33인 중 1인이라고 밝히며 감옥에 넣어달라고 요청한다.⁷⁴⁾

4. 옥중생활부터 마지막 눈감는 날까지

길선주는 3·1 운동 후 옥중에서 요한계시록을 만독(萬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 결과 출소 후에 그의 사역은 체계화된 묵시록·말세학 강의로 집약되어 이루어졌다.⁷⁵⁾

길선주는 맏아들을 잃은 슬픔과 둘째 아들이 수감되었다는 걱정, 게다가 다른 자녀들까지도 도피 중이라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는 중에 힘든 옥고생활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약해져 가는 시력은 성경을 읽는 기쁨마저 점차 앗아가는 고통을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상황이 열악하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의 열정과 애정은 결코 식을 줄을 몰랐다. 낮에는 성경을 읽고 밤에는 요한계시록을 암송하고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다.⁷⁶⁾ 옥중에서의 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졌고, 그로 인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도 더욱 커져갔다.

일본의 무력통치는 오래가지 못했다. 군국주의가 퇴장하고 민주주의가 기세를 올리는 세계의 정세⁷⁷⁾ 속에서 일제는 천황 제도를 보강하는 한편 식민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한다. 그리하여 헌병과 경찰을 앞세운 정책을 거둬들이고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교묘한 통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길선주는 무죄 판결을 받고 약 2년간의 수감 생활 끝에 석방되었다.⁷⁸⁾ 그러나 현실은 참혹했다. 105인 사건으로 맏아들을 잃고 둘째 아들은 3·1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여전히 수감 중이었으며 남아 있는 다른 자녀들도 모두 일제의 감시를 피해 은거하고 있었다. 오직 그의 부인만이 외로이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홀로 집에 남아 있었다.⁷⁹⁾

길선주는 출감 후 한동안 자택에서 휴양하며 순회 전도 계획만 세우고 기도와 성경 연구에

74)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199-201.

75)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172.

76)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10-211.

77) 1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족자결주의를 비롯하여 인류의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이 고조되는 사상적 대변혁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78) 일본은 3·1 운동에 가담한 서명 대표자들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소요 등의 죄목으로 분리하여 풀어주면서 세계의 동향을 살폈다.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14-215.

79)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18.

만 몰두하다가 1922년 정월,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는 편지를 받고 경남 지방으로의 전도 여행을 떠난다. 그가 인도한 집회는 초만원을 이루며 길선주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회중은 큰 은혜를 받았다.⁸⁰⁾

1922년은 길선주가 1898년 영수로 임명되어 교회에 봉사한지 25년, 조사로 시무하게 된 해인 1902년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15년이 되는 해였다. 장대현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의 ‘성역(聖役) 15주년 기념식’을 준비했다. 구 만류하던 길선주는 결국 교회에서 간소하게 치르는 것으로 기념식을 수락하여 “길선주(吉善宙) 목사(牧師) 전임(專任) 15주년(十五週年) 기념식(紀念式)”으로 거행(舉行)되었다.⁸¹⁾ 그는 4월 부터 이듬해인 1923년 4월까지 장대현교회를 살피며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에만 온힘을 쏟는다.⁸²⁾

일본의 조직적이고도 교묘한 문화통치는 조선사회를 더욱 어둡게 만들어 갔다. 그러나 길선주는 나이도 잇은 채 팔도강산을 누비며 전도여행 다니기에 여념이 없었다. 위기 속에 있는 민족에게 진정한 소망은 오직 복음 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불철주야 복음운동을 펼쳐간 것이다. 그러던 중 1926년, 장대현교회는 갑작스런 분란에 휘말리게 된다. 박윤근을 비롯한 사회주의 사상에 물든 청년들이 작당하여 유지회(有志會)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여러 청년들과 초신자들을 가담시켰다. 그들은 길선주 목사와 당회원들의 죄목을 열거한 유인물을 뿌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교회 내의 신, 구 세력 간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분란을 일으킨 세력은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점차 그 입지를 잃게 되었다.⁸³⁾ 신진세력은 부목사 변인서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고 길선주와 당회를 지속적으로 대항했다. 이에 시찰회에서는 창동교회 이인식 목사를 파송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하였다가 1927년 4월 4일에 평양노회 임시노회가 열렸을 때 장대현교회의 분쟁을 다루게 된다. 임시노회에서는 신하용, 홍인규, 윤수삼이 제출한 진정서를 수리하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평양별 시찰회 회원인 고려위, 김우석, 이성휘, 김선환 목사, 마뻬 선교사, 김동원, 윤성운 등을 선발했다.⁸⁴⁾

장대현교회의 분쟁이 잦아들 즈음, 길선주는 1927년 1월 원산지방 석우동(石隅洞)교회의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다. 그런데 이 때 사회주의에 물든 이들⁸⁵⁾에게 습격⁸⁶⁾을 받는 일이

80)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18-219.

81)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사기』, 이교남 역(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3), 44.

82)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19-220.

83) 위기를 느낀 그들은 최후 수단으로 예배 시간에 강단을 점령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결국 하나 둘 교회를 빠져나가면서 장대현교회의 분쟁은 차츰 가라앉게 되었다.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26-229.

84)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서울: 소망사, 1997), 285.

85) 길진경은 길선주 목사를 습격한 무리의 우두머리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김애신의 남

있었다. 이것은 장대현교회 분규사건(길 목사 배척 사건)이 길선주의 부덕이나 불미스러운 행적이 원인이 아니라 길선주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회주의자들의 선동에 영향을 받아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⁸⁷⁾ 이것은 길선주를 배척하여 내보낸 장대현교회가 후임 목사가 부임하고 몇 년 후 또다시 분규사건이 발생하여 이후 몇 년간 분쟁을 거듭하다가 총회에까지 이 문제가 비화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제 23회 총회총 회장 이인식).

1928년, 길선주 목사가 원로목사로 추대되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장대현교회의 분란은 그칠 줄을 몰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져 가는 혼란과 영적 침체 속에서 위기를 느낀 장대현교회 교인들은 옛 부흥의 시절을 회상하며 길선주 목사가 다시 시무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길선주 복무(復務) 운동을 전개⁸⁸⁾하였으나 길선주가 이에 불응했다.⁸⁹⁾

후에 김인서는 장대현교회가 당회파와 항의파로 분열된 원인을 4가지로 분석하였다.

- 1) 교회의 냉각과 평신도의 영적 기갈
- 2) 열성적으로 기도하는 이들에 대한 당회파들의 강압방침에 일반 교인들의 분노함
- 3) 교권 팽대에 대한 평신도들의 불만과 불안
- 4) 교회의 직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평교인들의 잘못⁹⁰⁾

1933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산정현교회에서 개최된 평양노회에서는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장대현교회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때 원로목사인 길선주를 사직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평양노회는 길선주 목사의 사직으로 인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선주를 따르는 이들을 하나의 교회로 분립시키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 안건은 1934년 5월 21일 평양특별노회에서 만장일치로 교회 분립이 통과되었다.⁹¹⁾

길선주는 1933년 1월 목사가 되어 설교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부터 자신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를 편히 놓아 주옵소서. 그러나 병석에서는 죽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강단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

편이었다고 기록한다. 김애신은 원산 마르다신학교, 요코하마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서 헌신봉사하는 일꾼이었으나 그녀의 남편은 공산당 과격분자였다. 길진경, 『영계 길선주』, 306.

86) 승실학교에서 길선주 목사에게 성경설교를 4-5년 들었던 김 아무개를 선두로 하여 30여 명의 청년들이 전기를 끄고 강대상에 습격하여 길선주를 덮친 사건. 『김인서저작전집 5』, 63.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111에서 재인용.

87)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 285-286.

88) 350명이 서명 날인하여 총회에 상정까지 하였다.

89)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13.

90)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14.

91)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13-114.

서”⁹²⁾ 길선주는 자신의 기도대로 남은 인생을 전도여행으로 보냈다. 평양, 평서노회 연합부흥회를 마친 후 길선주는 1934년 7월 3일 전라남도 해남읍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 평양을 떠났다.

1934년 초부터 7월 말까지 길선주는 북간도와 함경북도를 순회하면서 전도했다. 이 순회는 용정중앙교회를 시작으로 하여 시내 남녀 중학교와 중국인 교회와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부흥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명에 불타는 길선주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온 국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힘을 쏟았다.⁹³⁾

1935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길선주는 평안남도 강서군 잉차면 고창교회에서 평서노회 부흥회와 도사경회를 인도했다. 그런데 집회 마지막 날 축도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뇌일혈을 일으켜 쓰러졌다.⁹⁴⁾ 그리하여 길선주는 1935년 1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10분, 6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⁹⁵⁾

92)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38.

93)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39-240.

94) 길선주 목사가 정말 부흥회 마지막 날 집회 시에 쓰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사료를 추적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95) 길진경, 『길선주: 부흥의 새벽을 열다』, 241-243; 김광식, 『고창교회 100년사』, 126; 김수진·차종순·정성한, 임희국·탁지일,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십』 (서울: 쿤란출판사, 2010), 144에서 재인용. 『고창교회 100년사』에 의하면 길선주는 마지막에 평소에 즐겨 불렀던 “예수가 거느리시니”를 불렀다고 한다.

III. 부흥운동가 길선주 목사

세계적인 부흥운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뉴욕의 장로교 목사 존스톤 박사(Dr. Howard Agnew Johnstone)는 부흥이 있었던 영국 웨일즈와 인도 카시아 지방을 방문했다가 1906년 9월 서울의 선교사 연례회의에 방문한 후에⁹⁶⁾ 10월에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선교회 정기 모임에 주장사로 참석하였다.⁹⁷⁾ 그곳에서 존스톤은 누가 새로운 부흥운동의 주역이 될 것인지 물으며 원하는 자는 일어나라고 말했는데 이 때 일어난 사람이 바로 길선주였다.⁹⁸⁾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⁹⁹⁾과 같이 성령을 사모하며 부흥을 꿈꿨던 길선주는 자신의 그 바람대로 놀랍게 쓰임 받기 시작하였다.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기 전, 조사의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길선주는 1906년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재령에서 진행되었던 황해도 도사경회를 인도하였다.¹⁰⁰⁾ 약 600여 명이 참석한 이 집회를 통해 이재선(李在善) 장로를 비롯하여 김익두(金益斗)조사, 그리고 이원민(李元敏) 외 많은 교인이 큰 은혜를 받았다.¹⁰¹⁾ 특별히 김익두는 후에 목사가 되어 1920년대 부흥운동을 주도하는 부흥사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재령에서의 도사경회를 마치고 돌아온 길선주는 크리스마스 이후 한 주간 진행된 특별기도회 강사로 활약한다. 이 기도회 기간 매일 저녁에는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의 열기가 장대현교회당에 가득했다.

크리스마스 이후 시작한 저녁기도회는 1907년 1월 3일 목요일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성령의 강력한 현시가 나타나지는 않았더라도 이 특별 기도회는 평안남도도사경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이 집회를 두고 “우 리 모두에게 풍성한 축복이었다”고 고백한 매균의 증언이나¹⁰²⁾ 기도회가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사경회 기간 동안 평양 외국인 학교에

96) 박명수, 『한국교회부흥운동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44.

9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860.

98) 차재명 편, 『조선 예수교장로회사기 上』, 이교남 역(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237.

99)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00) 1907년 북장로교 보고서에는 길선주가 집회를 인도했다는 기록이 없다. 이에 대하여 박용규는 길선주가 아담스 선교사와 함께 집회를 인도했거나 그의 도움을 받아서 집회를 인도한 것으로 본다.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65.

101) 스왈렌 선교사는 평양에서 남쪽으로 약 50마일 떨어진 진남포에서도 매우 뚜렷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Swallen, *Letter to Dr. Brown*, Jan. 18, 190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65.

102) G. S. McCune, “The Holy Spirit in Pyeng Yang,” *KMF* III : 1 (Jan., 1907), 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16-217에서 재인용.

서 매일 정오기도회를 갖기로 의견을 평양지역 선교사들의 모습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를 충분히 알 수 있다.¹⁰³⁾

이렇게 1907년 한반도를 강타한 대부흥의 불길은 식을 줄 모르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박용규는 그의 저서 『평양대부흥운동』에서 전국적인 부흥의 확산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 1) 장대현 교회의 남자 사경회 등 평양에서 열린 일련의 사경회에 참석한 이들이 자기 고향 교회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확산시킨 경우
- 2) 평양 등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난 소식에 자극을 받아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을 통해 일어난 경우
- 3) 부흥운동의 지도자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경우¹⁰⁴⁾

위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각각의 요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으니 바로 평양과 부흥운동이다. 그리고 평양과 부흥운동이라는 두 간극을 이어준 핵심적인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길선주다.¹⁰⁵⁾

1. 길선주 목사가 인도한 집회¹⁰⁶⁾

길선주가 인도한 부흥회는 1928년, 시무목사를 그만 두고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후와 그 이전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는 1928년 이전까지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서 전국 팔도를 다니며 사경회를 인도하긴 하였으나 그가 장대현교회의 담임으로 시무 중이었기에 그의 주된 사역은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28년 이후에는 명예적인 원로목사로 추대 되었기에 한 지역교회를 넘어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자유롭게 부흥회를 인도

103)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217.

104)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11.

105)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성령의 불씨를 평양에서 전국으로 가지고 간 사람은 바로 길선주 장로였다.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15; 이 부흥운동의 클라이맥스는 1907년 한국인 전도자 길선주에 의해서 주도된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다. 박명수, 『한국교회부흥운동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34; 한국교회 대부흥운동의 주역으로 엄밀한 의미의 신앙 확립, 민족신앙의 내면화를 이룩해 가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한영제 편, 『한국 기독교 인물 100년』(서울: 기독교문사, 1988), 55.

106) 본 소고에서는 부흥회와 사경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것인데, 이는 비록 그 진행 방식이 달라 지긴 하였으나 20세기 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경회가 오늘날 부흥회 혹은 부흥 사경회로 전해져 왔기에 두 단어가 맥을 같이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할 수 있었다.¹⁰⁷⁾

본 장에서는 길선주가 인도한 집회를 1928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개략적으로 살펴 보며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영향을 미쳤던 집회와 그 영향력에 대하여 추적하고자 한다.

1) 1928년 이전의 집회

(1) 평양에서의 집회

1907년 1월 21일 수요일부터 2월 15일 화요일까지 2주 동안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사경회¹⁰⁸⁾가 열렸고 이 때 사무엘 모펫, 윌리엄 베어드쥬 지 앵겔, 그리고 길선주, 한석진 등이 인도했다.

1907년 1월 6일 저녁집회가 시작되던 첫째 날 저녁, 길선주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빠져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이들을 향하여 “맛을 잃은 말라빠진 사람들아”라고 외치며 회중의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날 길선주의 설교를 들은 모든 회중들은 자신의 죄를 통회자복하며 간절한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였다. 길선주의 설교 이후 사경회의 저녁 집회 열기가 강도를 더해가기 시작했다. ¹⁰⁹⁾

1907년 2월 17일은 전날에 있었던 성령의 임재¹¹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는 분위기가 장내에 가득했다. 이날 설교를 맡은 길선주의 얼굴은 평소 그의 모습과 달랐다. 게일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을 인용하여 길선주가 “대단한 위엄과 능력의 얼굴, 순결과 거룩함으로 불타는 얼굴이었다. 그것은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사경회 마지막 날 설교자로 단 위에 오른 길선주는 성령충만하였던 것이다.¹¹¹⁾

1907년 2월 15일, 길선주의 설교 이후 김종섭 장로가 통회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저는 교회 장로로써 강유문과 블레어 목사를 미워한 죄가 있습니다저 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

107)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18.

108) 이 집회에는 기독교로 개종한 백범 김구가 참석했는데 그는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 되고 진남포 엠피쓰 청 년회(Epworth League) 총무로 서울상동교회로 가서 상소운동(上訴運動)에 가담했으며, 해주에서 광 진학교(Elementary School, Haeju) 교사와 해서교육위원으로 있으면서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억주, 『1884-1945 한국교회사 I (서울: 도서출판 세 줄, 2010), 136.

109)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72.

110)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다”는 블레어 선교사의 고백은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기간 중에 임한 은혜의 강도가 얼마나 컸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날(14일) 집회에 참석한 조지 매쿰(George McCune)은 “매우 놀라운 은혜,” “최초의 실제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 등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 읽었지만이 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이라고 기록하며 14일 밤에 있었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11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8.

고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¹¹²⁾ 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는 김종섭을 본 블레어 선교사는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순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장로회사기』는 1907년 7월 에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1907년(一千九百七年) 1월(一月)에 평양(平壤) 장대현교회(章臺峴教會)가 부흥(復興)하니라. 선시(先是)에 원산(元山) 거주(居住) 남감리과(男監理會宣教師) 하리영(河鯉泳, [Robert Hardie])이 평양(平壤)에 래(來)야 장감양과선교사(長監兩派宣教師)를 회집(集)하여 부흥회(復興會)를 개()하였는데 성신(聖神)의 감동(感動)을 맞아 각기(各其) 죄(罪)를 자복(自服)하는 중(中) 이길함(李吉咸, [Graham Lee])이 특은(特恩)을 받고 평양(平壤)교회(教會)의 제직(諸職)을 회집(集)하여 1주일간(一週日間) 매야(每夜)에 요한1서(約翰一書)를 교수(授)하던 중() 제직(諸職)들이 은혜(恩惠) 기를 시작(始)하여 스며 기년(其年) 10월(十月)에 미국인 박사(米國人 博士) 하웰드, 매그누스, 잔스튼[Howard Agnew Johnston]이 동교회(同教會)에 래(來)야 영국(英國) 쓰[Wales] 지방(地方)과 인도국교회(印度國教會)에서 성신(聖神)의 은사(恩賜)받은 사(事)를 설명(說明)하고 청중(聽衆)에 향(向)하여 성신(聖神)맞기를 원(願)하던 자(者)는 기립(起立)하여 함께 길선주(宙時)를 주시() 기립(起立)하니 해박사(該博士)가 예언(預言)하기를 차지(此地)에 聖神()이 장차강림(將次降臨) 리라 하더니 시년(是年) 1월(一月) 평남군(平男郡) 사경회(查經會) 시(時)에 각(各) 학교(學校)에서도 성신(聖神)맞기 위(爲)하여 기도(祈禱)하더니 김찬성(燦星)이 인도(引導)하는 승덕학교(崇德學校) 기도회(祈禱會)에 모여 300여명(餘名) 학생일동(生一同)이 회죄통곡(悔罪痛哭) 차(此)가 사경회(查經會)에 전파(傳播)되고 길선주(吉善宙)가 성신도리(聖神道理)를 교수(授)하던 중(中) 정민(蔡廷敏)을 위시(爲始)하여 사경회(查經會)의 각반(班)을 회죄통곡(罪痛哭)하고 선교사(師) 이길함(李吉咸, [Graham Lee])이 매야예배(每夜禮拜) 인도(引導) 중(中) 연(然) 급(急)한 바람이 임(臨)한 것 같더니 만당청중(滿堂聽衆)이 성신(聖神)의 감동(感動)을 맞아 각기(各其) 죄(罪)를 자복(自服)하며 통곡(痛哭)하니라. 여사(如斯)히 10여일(餘日)에 각(各) 교회(教會)가 크게 부흥(復興)되얏스며 길선주(吉善宙)의 인도(引導)로 1개월(個月) 더 계속(繼續) 난 중(中) 수천명(數千名) 교인(教人)이 다 중(重)[180]생(生)의 성신세례(聖神洗禮)를 받았나니라.¹¹³⁾

112) 이억주, 『1884-1945 한국교회사』, 178.

113) 차재명 편저 『예수교장로회사기』, 237-238.

사경회가 진행되던 현장에서 이 일을 목도한 블레어 선교사도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마치 건물 지붕이 열리는 것 같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다. 나는 김씨 옆에 거꾸러져 울면서 과거에 없던 방식으로 기도했다. 그 순간 회중들을 힐끗 보았을 때의 장면이 나의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고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어떤 이들은 바닥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고 수백 명은 하늘을 향해 손을 올리고 서 있었다. 주위의 다른 사람에 대해 아랑곳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각자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었다. 수백 명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자 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던 그 두려운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할 수 있다. 그 부르짖음이 시가지로 퍼져나가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황망해 했다.¹¹⁴⁾

“마치 건물 지붕이 열리는 것 같더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셨다.”고 고백하는 블레어의 증언은 이 날 임한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강했는가를 알기에 충분하다. 스왈튼 선교사도 마지막 날 저녁집회의 “성령의 역사는 전날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다만 더 강하게 나타났다. … 나는 그날 밤의 장면을 설명하기에 더 이상 어떤 단어도 적합하지 않다”¹¹⁵⁾고 증언하였다. 선교사들의 증언은 하나 같이 사경회 마지막 날 길선주가 인도하였던 집회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15일은 사경회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날 설교를 맡은 자가 길선주 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부흥의 중심에 길선주가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설교자로서 길선주의 은사와 역량이 실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펏이 길선주를 “한국 교회의 가장 달변의 설교자”¹¹⁶⁾라고 칭하는 것으로 볼때 그는 조선 사람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외국인 선교사들에게까지 설교 능력을 인정받았던 타고난 설교가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와 더불어 기독교학교, 그리고 여자부흥회와 주일예배에 이르기까지 길선주가 인도한 집회의 일정을 고려해보면 설교자로서 그의 역량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114) Graham Lee, “How the Spirit came to Pyeong-yang,” 35; 이억주, 『1884-1945 한국교회사 I』, 178에서 재인용.

11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84.

116) 마펏, “한국의 교육 사역,” 『인테리어』 38-1916 (1907년 1월 14일), 1-4.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112.

표 1: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일정표(1907년 월)¹¹⁸⁾

주일	일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선교사 매일 정오기도회	참가자 남 700명 여 24명	사경회(2-15일)	
6 6-15일 밤	7 부흥회 매일	8 1,500명 참석	9	10	11	12
길선주 설교 “마음의 문을 열고 성신을 영접하라”	길선주 설교 “이상한 귀 빈피 상한 주인”	길선주 설교 “지옥을 취하라 천당을 취하라”	길선주 설교 “성령 앞에 숨 을 자는 없다”	길선주 설교 “이신 칭의”	길선주 설교 “무궁 안식 세계”	블레이 설교 “discord and unity”
13 오후설교리 우울한 저녁집회	14 저녁설교헌트 기도인도리 성령강림 통성기도 2시까지 회개	15 저녁설교 길선주 성령강림 통성기도 회개	16 송의여학교 송덕남학교 선교사 정오기도회 성령강림 수요예배 설교리 성령강림 주공삼장도 회개	17 송의여학교 성령강림	18 여자 부흥회	19 (17-19일)) 성령강림¹¹⁷⁾
20 오후설교 길선주 맞출설교 성령강림	* 노란 박스는 길선주가 설교한 날을 표시한 것이고 붉은 화살표와 푸른 화살표는 각각 사경회와 여자 부흥회 기간을 표시한 것이다.					

평양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경회 일정표에서 알 수 있듯이 사경회 기간 동안에 길선주 목사는 무려 8번의 설교를 하였다. 사경회 기간 중에 누구보다 가장 많은 집회를 인도한 것이다. 그리고 사경회 마지막 날인 15일, 그가 설교하고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강림의 역사가 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날에도 송의여학교¹¹⁹⁾와 송덕남학교에 성령강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¹²⁰⁾은 길선주 목사가 인도했던 집회와 그 영향력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경회와 여

117) 이길함 선교사는 여자 부흥회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 일 밤에 능력이 임했고, 그때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죄를 고백하며 괴로워했다.”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52.

118)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31.

119)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40. 1903년 10월, 사무엘 마켓이 평양 상수구리에 설립한 학교로 1907년에 목조 십자형 흉 교사를 지었고, 1911년에는 5,000평의 부지에 대규모 건물을 건축하였다.

120) 다음은 송의여학교와 송덕남학교에 있었던 부흥에 대한 기록 가운데 일부이다. 스 누크 양은 오늘 [16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를 마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한 여학생이 일어나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일어나 그렇게 했습니다. 아침 내내 기도와 고백만 했습니다. 스 누크 양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원하는 학생들에게 다음에 기회를 주기로 하고, 식사를 위해 1시에 모임을 끝내야 했습니다. (George. McCune to A. J. Brown, January 15, 1907). 수요일 아침 장대현교회에 있는 초등학교의 남학생들이 평소와 마찬가지로

자 부흥회가 모두 종료된 20일(주 일), 길선주 목사가 설교하였을 때 다시 한 번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였다. 게일 선교사는 이 날 주일 예배를 두고, “가장 놀라운 집회 가운데 하나”¹²¹⁾ 였다고 평가한다. 이와 같이 1907년 평양대부흥의 개막전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 1월 에 열린 평안도 도사경회에서 길선주의 역할은 지대했다. 양적(量) 의 설교)으로 보나 그 영향력(그가 설교하였을 때 성령강림의 역사가 2번 이나 있었고, 그 간접적인 영향으로 승의여학교와 승덕남학교에 성령강림의 역사가 있었음)으로 보나 길선주는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장대현교회에서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시작에 불과했다. 장대현교회의 겨울 남자 사경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각자의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하며 돌아가서 부흥의 소식을 전하자 각각의 지역교회에서도 부흥이 임한 것이다. 사경회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 교회에서 사경회를 열어오며 영적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움직임이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평양장대현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간 부흥의 소식과 같이 평양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여자 고등성경학교, 장대현교회 남자학교, 여자보통학교, 선교사들의 정오기도회, 그리고 장대현 교회 수요 저녁기도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이다.¹²²⁾

1907년 1월, 평양 장대현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강림은 평양대부흥을 향한 거룩한 불꽃이었다. 한 달 후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시작된 부흥의 열기는 장로교를 넘어 감리교에까지 전해졌다. 1907년 2월 19) 평양 남산현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현장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리은승 목사는 “마땅히 평양교회사기 머리에 기록할”만큼 중요한 날이며 “우 리 감리회의 선진”이 되는 날이라고 고백하였다. 또한, 평양 남산현교회에서 1907년 2월 22) 부터 3월 22) 까지 진행되었던 감리교 사역자들을 위한 신학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였다. 신학회에 참석한 노블(W. A. Noble), 모리스(C. D. Morris), 무어(J. Z. Moore), 포렐(R. D. Follrell) 선교사를 비롯한 97명의 감리교 지도자들은 죄에 대하여 통회하였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소유했다.¹²³⁾

공부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날 아침 수업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교사가 평소대로 신앙 교육을 시작했을 때, 남학생들이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했고오 후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남학생 세 명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학생들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 구내에 있는 여자 초등학교를 지나갈 때, 저는 그들도 울며 통곡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이셀 부인이 시내에 있는 여학교에 가서 간단히 설교하자 그들은 거꾸러져 울면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Graham Lee to A. J. Brown, January 17, 1907).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41, 243.

121) James S. Gale,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en's Missionary Movement, 1909), 210.

12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94.

12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95-896.

1909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는 전국적으로 놀라운 영향력을 미쳤던 평양대부흥운동의 열기가 순식간에 식어가는 것을 보며 1907년에 임한 부흥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 임하기를 사모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박치록(朴致祿) 장로와 함께 새벽기도를 시작한 것이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시작한 새벽 4시의 기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대현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은 하나 둘씩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기 시작했다.¹²⁴⁾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작했던 새벽기도회에 참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길선주 목사는 주일 예배 시간에,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참여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광고가 있는 후 바로 다음 날 새벽기도회는 수백 명이 모이는 대집회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회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기도회를 광고하고 1월 10일이 지났을 때에는 600-700명의 교인들이 함께했고, 기도회에서 감동과 도전을 받은 이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작정하였다.

넷째 날 새벽에 기도하는 동안 갑자기 전 회중은 무관심 냉랭함, 사랑의 결핍, 사역에 대한 열정의 결핍 등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울부짖었다. 그 후 용서의 기쁨이 찾아왔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역의 방식들과 수단들이 현시되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며 4일 새벽을 더 보내면서 지금이야말로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 길선주 목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하루를 불신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드리겠는가를 물었다. 두가 손을 들었다. 그런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들을 갈 수 있는가를 물었다. 다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손을 들었다. 삼 일을 요청하자 손을 든 사람은 더 적었으나 아직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고, 4일, 5일, 그리고 6일을 말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으나 심지어 7일을 말하자 꽤 여러 명이 손을 들었다. 그 다음 주일에 그들이 참여했던 성찬식은 축복된 성찬식이었으며, 그 후 전 교회가 열심히 나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¹²⁵⁾

부흥의 열기가 사그라들던 때에 새벽기도회에서 제시한 길선주 목사의 권면은 교인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북돋았다.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장대현교회에의 새벽기도는 평양 시내와 근교, 그리고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었다.¹²⁶⁾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은 마치 평양대부흥운동의 속편을 보는 것 같다. 1907년의 평양대

12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40.

125) "A Story of Korean Prayer," 18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41에서 재인용.

126)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41-942. 장대현교회에서 작성된 날연보는 3,000일이 넘었다.

부흥운동이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에서 시작되었고, 사경회에 부흥이 임하도록 쓰임 받은 주역이 길선주였던 것처럼 1909년에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막혀있던 은혜의 포문을 열었던 교회와 작은 은혜의 불씨가 백만인구령운동으로 확대되도록 한 인물이 각각 평양 장대현교회요, 길선주 목사였던 것이다. 평양 장대현교회와 길선주 목사는 다시 한 번 대부흥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이다.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장대현교회의 성도들 안에 심겨진 구령의 열정은 백만인구령운동 전도집회에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3주 동안의 집회에서 700명이 결신한 것이다.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장대현교회의 담임이었던 길선주 목사의 역할이 이 때에도 두드러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도들에게 심긴 구령의 열정은 이웃 교회인 평양의 남산현감리교회에서까지 전해져 그곳 집회에서도 한 주 만에 100명이 결신하는 일이 일어났다.¹²⁷⁾ 이 역시 길선주 목사와 그를 통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영향이 한 데 어우러져 일어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1928년 이전까지 길선주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길선주 목사가 1922-1928년까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¹²⁹⁾

년도	월	일	집회 내용	지역
1922	3	27	평양시찰회 합동 집회	평양
1923	5	6	평양 승의여학교 집회	평양
	5	7	평양 승의대학교	평양
	5	10	평양신학교	평양
	5	20	평양시찰회	평양
	5	26	평양여성경학교	평양
	6	4	평양 산정현교회	평양
	6	5	평양노회 제직 사경회	평양
	6	13	평양노회 집회 설교(연화동 교회)	평양
	6	14	평양 여성경학교 기도회 설교	평양
	6	30	평양 원천 봉영면 금평리 교회	평양
	7	15	평양 사창골교회	평양
	7	17	평양 노회 도사경회	평양
	7[8] ¹²⁸⁾	5	평양 서문밖교회	평양
	10	25-31	장대현교회 기도회	평양
* 이외에도 1924-1928년 동안에 집회 및 설교 일정이 300여 회 정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항목에서 제외함.				

1922년부터 1928년까지 길선주 목사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는 15회로 이 수치는 1923년 1월 장대현교회 기도회를 제외하고 장대현교회 담임목사로서 그가 인도한 집회는 통계에서 빠진

12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54-955.

128) 저자(길진경)의 오기이거나 길선주 목사의 일기장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8]는 필자의 추가

129) 길진경, 『영계 길선주』, 335-336.

것으로 파악된다.

(2) 서울에서의 집회

장대현교회에서 발흥한 부흥의 여파가 평양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이면에는 길선주가 있었다고 했던 소열도 선교사의 평가¹³⁰⁾와 같이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은 길선주를 통하여 인근 지역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평양과 함께 복음의 확장과 교회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서울에서는 부흥을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에 가장 먼저 착수하기 시작했다. 평양에서 부흥의 불씨로 쓰임 받은 길선주를 초빙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길선주는 성령강림과 부흥을 열망하는 서울지역의 교회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초청에 응하였고, 1907년 2월 17일부터 3월 초까지 3주간 승동교회에서 진행되는 서울 장로교 연합 사경회를 인도하였다. 그는 평양에서 그랬던 것처럼 회중을 향하여 강하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의 말씀을 들은 회중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회복되어 그 죄의 무게에 고꾸라져 울부짖었다. 부흥운동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이창직은 부흥회가 거듭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전까지만 해도 길선주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던 그가 길선주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할 정도로 큰 변화를 입게 되었다.¹³¹⁾

『장로회사기(上)』은 1907년 서울장로교 연합 사경회에 임한 부흥의 역사를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동년(同年) 춘(春)에 경성(京城) 각(各) 교회(教會)가 부흥(復興)하다. 평양교회(平壤教會) 길선주(吉善宙) 장로(長老)가 경성(京城)에 래(來)하여 경기도(京畿道) 사경회(查經會)에 성신도리(聖神道理)를 교수(授)할 시(時)에 성신(聖神)의 감동(感動)을 받아 각기(各其) 죄(罪)를 자복(自服)하고 애통(哀痛)하며 중생(重生)의 세례(洗禮)를 받았고 열심(熱心)으로 전도(傳道)하여 도내(道內) 각(各) 교회(教會)가 크게 부흥(復興)하니라.¹³²⁾

길선주의 설교에 첫날부터 크게 감동되었던 회중들은 둘째 날 집회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길선주가 성령의 도리에 대하여 전할 때 승동교회와 연동교회의 수백 명의 양반들이 죄를 회개하며 머리로만 믿던 신앙에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이다. 그 결과 예배당에서 양반과 상놈이 분리되어 앉았던 기존의 관례를 깨고 모두 함께 모여

130)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23.

13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09.

132) 차재명 편저 『예수교장로회사기(上)』, 238.

왔는 변화가 일어났다.¹³³⁾

노블과 존스 선교사도 *The Religious Awakening of Korea* 에서 성령이 충만한 길선주를 주목하며 사경회 기간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들을 증언한다.

서울에 있는 교회들의 초청을 받아 평양 장로교회에서 강력한 능력이 있는 한 한국인 장로(길선주)가 와서 이 대도시의 교회에서 며칠을 보냈다. 이것이 정화의 체험의 시작이었다. 이는 단지 며칠 동안만 지속되었고따라서 평양에서 일어난 것과는 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그 럼에도 기독교인들의 마음에 새 생명을 가져다주었던 은혜로운 집회였다. 죄로 인한 고뇌와 슬픔, 고백할 때의 큰 고통, 삶에서 나타나는 깊고 놀라운 능력의 현상이 평양에서와 똑같이 일어났다. 서울의 지도적인 교회의 목사(정동제일교회의 최병헌 목사)도 이 부흥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¹³⁴⁾

길선주는 서울 장로교 연합사경회에 이어 “勝洞蓮 洞, 水口門, 尙洞, 諸教會 鑿窟 ”를 인도했고, 그가 인도하는 집회마다 평양대부흥의 주역으로 널리 알려진 길선주가 강사로 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¹³⁵⁾ 성령에 사로잡힌 길선주가 전하는 말씀은 큰 능력이 있었다. 인도하는 집회마다 회중의 회개가 터져나온 것이다. 길선주가 인도했던 서울 지역의 전도집회에서 1,200명이 결신했다는 사실은 서울 지역에 임한 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와 서울지역 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길선주의 역할이 얼마나 컸는지를 충분히 보여준다.¹³⁶⁾

이후에도 게일 선교사는 그의 저서 『전환기의 한국』에서 길선주가 인도한 부흥회를 통하여 서울지역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이후에도 지속적인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증언한다.¹³⁷⁾

앞서 언급한 내용을 제외하고 1928년 이전까지 길선주가 서울에서 인도한 집회(경성각교파연회부흥회[기독교청년회관출 동교회 설교[3회], 경신중학교 설교, 정신여학교 설교, 주일학교대회 설교[기독교청년회관출 울 남대문교회 설교 등]¹³⁸⁾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확인되

133)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82.

134) 윌리엄 노블, 조지 히버 존스, 『한국의 신앙 각성: 1907년 한국 교회의 부흥 이야기 기류(육: 미국 북감리회 선교본부, 1908).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211.

135) 金麟瑞, “靈溪先生小傳(二)”, 3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10에서 재인용.

136) Margaret Best, Letter to Dr. Brown, Mar., 3, 190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10에서 재인용.

137) Gale, *Korea in Transition*, 215;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30에서 재인용.

나 구체적인 일정이나 집회 현장의 기록이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전까지 길선주가 인도한 집회에서 있었던 결과와 그 흐름으로 미루어 보건데 이후의 집회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그 외 지역에서의 집회

1907년 1월 14, 15일, 평양장대현교회에서 발흥한 부흥운동은 평양 시내 교회를 휩쓸고 인근의 지역과 한반도 전역까지 확산되었다. 한반도 전역의 선교부 가운데 부흥운동의 영향을 느끼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 부흥운동의 저변확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장대현교회 사경회에서 직접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부흥운동 확산의 주역¹³⁹⁾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 길선주가 있었다. 알렌(Horace N. Allen)은 길선주를 부흥운동의 기폭제로 보았으며 백낙준 선교사는 길선주를 통해 “신자가 있는 것으면 어디에서나 부흥의 체험이 반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⁴⁰⁾

1908년 길선주가 목사가 인도한 의주 지역의 집회에서는 천여 명의 회중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은 밤이 새도록 통회하였다. 이 집회에서 길선주의 말씀을 듣고 통회기도 하다가 혼절한 사람이 있었고, 길선주 목사가 집회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이백 여 명의 소학생들이 울면서 그를 송별하였다.¹⁴¹⁾

1910년 7월, 전주에서는 7월 일주일간의 기도회 후에 길선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부흥회에서 1월 동안에 무려 353명이 결신하였다.¹⁴²⁾

백만인구령운동의 일환으로 전도위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를 지방의 교회로 보내어 집회를 인도하게 하였다. 1910년, 대구에서 길선주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하였는데 그가 10일 동안 인도한 대구의 집회에서 ‘믿 기로 작성한’ 이들이 500명이 넘게 나왔다.¹⁴³⁾

1910년, 안동의 한 교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를 1월 13일(주 일) 예배 설교자로 초청하였다. 평양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주일예배에 설교하러 온다는 소문은 삼시간에

138) 길진경, 『영계 길선주』, 336-341.

139) 평양 장대현교회의 사경회 이후 선천과 의주에서 집회를 인도한 이길함 선교사, 해주지역의 부흥운동에 불을 지핀 곤미 교회 담임목사, 영변에서 집회를 인도한 블레어 선교사, 재령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윌리엄 헨트 선교사, 대구에서 집회를 인도한 윌리엄 헨트 선교사, 제물포에 부흥위 소식을 전해준 이은송 목사와 손정도, 이들 모두는 평양 장대현교회 사경회에 참석하여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었다.

14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06-907.

141)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335.

142)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52.

143) Mills, “A Letter from Taiku,” 13;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73-674에서 재인용.

안동 전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왔다. 그 결과 예배에 참석하고자 했던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어 예배당에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남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임시 천막까지 설치해야 했다. 이 날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듣는 이들의 심령을 꿰뚫었고 이후에 집계된 내용에 따르면 길선주가 인도한 예배를 통해 기존 교인들의 두 배보다 많은 98명이 결신했다고 한다.¹⁴⁴⁾

1917년, 길선주가 인도했던 동해안 지역의 집회에 대하여 윌리엄 노블 선교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1917년, 길 목사는 동해안 지역을 다니며 사경회를 인도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도 강력하여 사람들이 모두 누그러져서 죄를 고백했다. 모든 슬픈 일 가운데 가장 슬픈 일이 있다면, 누그러져서 죄를 고백했다.¹⁴⁵⁾

1919년, 함북(咸北)에서 있었던 집회에서는 길선주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회를 하여 120명의 새신자를 얻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길선주 목사로 인하여 지역 교회에 부흥에 대한 열망이 일어났고 불신자들에게는 신앙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고 한다. 이후 박결(朴傑), 두송(婁斗松), 필근(蔡弼近) 목사가 그 지역에서 부흥회를 열어 500명의 새신자가 교회로 유입되었다.¹⁴⁶⁾ 여기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길선주 목사가 함경북도 지역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함으로써 지역의 토양을 바꾸어 신자에게는 은혜를 사모하게 하고, 불신자에게는 교회와 신앙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사실이다.

1921년, 경상남도 진주에서의 부흥회도 부흥운동가로서 길선주의 역량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말씀 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주저 없이 찾아갔던 길선주 목사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부흥회 강사 요청이 오자 1921년 9월 9일 밤부터 10월 9일로 예정된 10일의 긴 부흥회 일정을 승낙하고 말씀을 전했다. 길선주의 부흥회 인도로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 크게 부흥되어 새로 믿기로 한 자가 많았다고”¹⁴⁷⁾ 기록하는 것은 부흥운동가로서 길선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해준다.

144) “Notes from the Stations,” KMF VII : 2 (Feb., 1911), 36-37;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676-677에서 재인용.

145) 윌리엄 노블, 조지 히버 존스, 『한국의 신앙 각성: 1907년 한국 교회의 부흥 이야기』 (역: 미국 북감리회 선교본부, 1908).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247.

146) 광안련(郭安連) 편집(編輯), 『장로교회사전회집(長老教會史典彙集)』 (미간행 자료).

147) 김정수, 『진주면 옥봉리 예수교장로회연혁사』 (진주: 진주면 옥봉리교회, 1930), 4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280에서 재인용.

위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길선주 목사가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길선주 목사가 1922-1928년까지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⁵⁰⁾

년도	월	일	집회 내용	지역
1922	2	7-15	구마산교회	마산
	2	16-22	경화동교회	창원
	2	23-3월 일	칠원읍교회	함안
	3	2-8	진해읍교회	창원
	3	9-15	김해읍교회	김해
1923	5	30	용강 온중리교회 남포교회	창원, 마산
	7	30-7[3-7] ¹⁴⁸⁾	상동	상동
	8	16-22	용강 봉명 교회 사경[회] ¹⁴⁹⁾	평안남도
	9	14-20	선천 내동 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9	25-30	부산 초량 교회 부흥회	부산
	10	3-9	상주교회 부흥회	상주
	11	14-21	강계 도사경회	평안북도
	11	22	회천교회 설교	평안북도
	12	2	영주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12	3-16	풍기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12	17-23	내매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12	24-27	매정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1924	1	5	안동교회 노회부 사경겸 부흥회	경상북도
	1	11-18	외서창교회 부흥회	

※ 이외에도 길선주 목사가 1924-1928년 동안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와 설교 일정이 300여 회 정도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없어 항목에서 제외함.

1922년부터 1928년까지 길선주 목사는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19회의 크고 작은 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에서 14회, 평안도 지역에서 4회, 기타지역에서 1회로, 주로 경상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집회를 인도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1928년 이후의 집회

1928년 이후 길선주 목사가 인도한 집회는 그 일정과 내용이 길진경의 『영계 길선주』에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초자료가 되었던 길선주 목사의 일기책과 ‘비망록등 이 해방과 6·25사변으로 인하여 상당부분 소실되어 상세한 내용 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본 단락에서는 길선주 목사가 인도했던 집회의 일정과 간단한 내용만 표로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148) 저자(길진경)의 오기이거나 길선주 목사의 일기장에 오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7]는 필자의 추가

149) [회]는 필자의 추가

150) 길진경, 『영계 길선주』, 335-336.

(1) 평양에서의 집회

표 4: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¹⁵¹⁾

년도	월	일	집회 내용	지역
1930	1	26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1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3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3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4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5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7	20	장대교회회 부흥회	평양
	8	2	장대교회회 설교	평양
1931	2-3		평양 동대원, 자라웃 두 교회 연합부흥회	평양
	4		장대현교회 설교(2회)	평양
	4		평양 신암교회 설교	평양
	5		장대현교회 설교	평양
	5		평양 기림리교회 설교(2회)	평양
	5		평양 여자 고등성경학교 부흥회	평양
	5		평양 여자 보통성경학교 부흥회	평양
	7	12	평양 회중교회 부흥회	평양
	7	20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회	평양
	8	2	평양 기림리교회 설교	평양
	12	29	평서, 평양 양노회 도 사경회	평양
1932	6		장대현교회 설교	평양
	9	11	총회설교	평양
	10	5	장대현교회 설교	평양
	10	17	장대현교회 설교	평양
1933	1	4	평양 조앙이교회(도마스기념관) 교회 설교	평양
	1	24	평양 승실전문학교 부흥회	평양
	5	14	평양 연화동교회 설교	평양
	7	2	평양 선교회 교회 설교	평양
	8		평양 신앙리 감리교회 부흥회	평양
	8	24	평양, 평서양노회 제직 도사경회	평양
1934	7	22	평양 연화동교회 설교	평양
	8	1	평양 이항리교회 부흥회	평양
1935	1	25	평양서문밖교회 부흥회	평양
	2	10	평양 이항리 교회 설교(새벽, 저녁)	평양
	11	11	평양 이항리교회 설교	평양
	3	17	평양 이항리교회 설교	평양
	3	24	평양 이항리교회 설교	평양
	4	17	평양 이항리교회 설교	평양
	4	18	평양 고정교회 설교	평양
	4	25	평양 남문밖 교회 주일 설교	평양
	5	5	평양 기림리교회 설교	평양
	6	2	7월까지 평양 이항리 교회에서 매주일 설교	평양

1928년부터 1935년까지 길선주 목사가 평양에서 인도한 집회는 1930년 8회, 1931년 11회, 1932년 4회, 1933년 6회, 1934년 2회, 1935년 10회, 총 41회이다. 한 번의 집회 시 1회 혹은 2회 설

151) 길진경, 『영계 길선주』, 341-345.

교하였으며, 집 회의 종류는 주일 설교 외에 학교 부흥회와 개교회 사경회, 교회 연합 사경회, 도 사경회로 다양하다.

(2) 서울에서의 집회

표 5: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서울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⁵²⁾

년도	월	일	집회 내용	지역
1931	10		경성 피어슨 성경학교 부흥회	서울
1932	2	28	경성 연지동교회 부흥회	서울
	2	28	경성 승동교회 설교	서울
	12	17	중앙교회 설교	서울
	12	17	남문외교회 설교	서울
1934	1	14	서울 연동교회 설교	서울
	12	5	서울 승동교회 부흥회	서울
			서울 연동교회 부흥회	서울
	12	23	경의선 남천교회 부흥회(3일간)	서울
	12	26	강동교회 부흥회	서울

1928년부터 1935년까지 길선주 목사가 서울에서 인도한 집회는 총 9차례로 승동교회와 연동교회는 설교와 부흥회로 총 두 번의 집회를 인도했고, 경의선 남천교회에서는 3일 동안 부흥회를 인도했다.

(3) 그 외 지역에서의 집회

표 6: 길선주 목사가 1928-1935년까지 평양과 서울 외의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 현황⁵⁴⁾

년도	월	일	집회 내용	지역
1928			경안지역에서의 순회 부흥회(2개월) ¹⁵³⁾	경안
	冬		황해도 길천읍교회 부흥회	황해도
1929	7		황해도 길천읍교회 부흥회(제 2차)	황해도
1930	12		경북 연일군 흥해교회 부흥회	경북
	12		경북 연일군 포항교회 부흥회	경북
	12		경북 경주군 안강교회 부흥회	경북
	12		경북 경주군 신녕읍교회 부흥회	경북
1931	1		황해도 곡산군 덕미면 화암교회 부흥회	황해도
	1		황해도 곡산군 덕미면 신평교회 부흥회	황해도
	1		황해도 곡산군 곡산읍교회 부흥회	황해도
	1		황해도 적안군 두더취교회 부흥회	황해도
	2		황해도 적안군 경도리교회 부흥회	황해도
	2		평남 강동 열파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2		평남 안주 연동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3		평남 순안군 평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3		평북 선천군 가물남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3		평남 대동군 청호리 신무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3		평남 강동군 승호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52) 길진경, 『영계 길선주』, 341-345.

	4		용강군 해운면 용번리 반석동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8	3	중화군 충정리교회 설교	황해북도
	8	11-18	대동군 청룡면 산사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8	19-26	대동군 청룡면 장천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8	27-9월 일	신안주 교회 부흥회	평안도
	9	4-10	순안 수누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1	23	선천 각교회 도사경회	평안북도
	11		선천 중앙교회 설교	평안북도
	11		동 중앙교회 설교(3차)	평안북도
	12		신의주 삼일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12	17	대동군 울리면 삼합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932	1	7	강서군 성대면 독좌동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	14	차배관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1	22	박천읍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1	30	대동군 울리면 무진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2	5	황주읍교회 부흥회	황해도
	3(봄)		신의주 북하동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3		신의주 재이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3	30	구의주 동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3	30	구의주 서교회 설교	평안북도
	11	9	의주군 고관면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11	19-27	의주 서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11	19-27	의주 동교회 설교	평안북도
	12	7-14	삼징교회 부흥회	
	12	17	김천 서문외교회 부흥회	김천
	12	17	신흥학교 설교	
	12	26-1933.1.2.	해남군 송지면 미아리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933	1	9	정주읍 교현면교회 부흥회	전라북도
	1	16	철산군 참면 용산리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2	2	강서 사천시 교회 부흥회	
	2	11	대동군 울리면 간중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2	20	의주군 비현면 당동 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2	28	의주군 고성면 용산동 대신리교회 설교	평안북도
	3	8	의주군 고성면 대산교회 설교	평안북도
	3		안동현 교회 설교	평안북도
	3		안동현 연합청년회 설교	평안북도
	3		의주군 고성면 용산리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3	30	의주군 송장면 창원교회 부흥회	평안북도
	4		박주 신읍교회 부흥회	평안도
	4		안주 성내동서 양교회 연합 부흥회	평안도
			목포 전남노회 부흥회	전라남도
			목포 정경여학교 설교	전라남도
			목포 정경남학교 설교	전라남도
			목포 주일학교 아동회 설교	전라남도
	8	18	한천교회 부흥회	
	9	8	대동군 구동창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9	16	안주성내 각교회 연합부흥회	평안도
	9	26	용천양시교회 부흥회	평안도
	10	8	전남해남읍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0	17	전남해남미아리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0	21	전남완도군신학리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0		남창교회 설교	전라남도
	10		해남읍교회 설교	전라남도
	10	29	광주 연립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1		광주 중앙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1	14	목포 양동교회 남녀학교 부흥회	전라남도

	11	22	강진군 남성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2	1	담양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2	8	광주여자 대사경회	전라남도
	12	18	순창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2	23	우수영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934	1	3	해남군 문내면 고당리교회 부흥회	전라남도
	1	21	해주 감리교회 부흥회	황해도
	2	1	안주 도화리교회 부흥회	평안도
	2	4	안주기마교회 부흥회	평안도
	2	8	안주용복교회 부흥회	평안도
	2	15	황해도 충천교회 부흥회	황해도
	3	1	북간도 용정시 중앙교회 부흥회	북간도
	3	1	북간도 용정시 토성교회 설교	북간도
	3		북간도 남녀중학교 (4일간)설교	북간도
	3		북간도 여중학교 (2일간)설교	북간도
	3	13(밤)	북간도 용정시 중국인교회 설교	북간도
	3	14	북간도 용정시 동산교회 부흥회	북간도
	3	26	북간도 두도구교회 부흥회	북간도
	4	2	북간도 용정시 명월구교회 부흥회	북간도
	4	9	북간도 국자가 감리교회 부흥회	북간도
	4		북간도 국자가 장도교회 부흥회 (2주간 공동집회)	북간도
	4	23	북간도 도문교회 부흥회	북간도
	5	6	성진 행정교회 부흥회	함경북도
	5		성진 옥정교회 부흥회	함경북도
	5	22	청진항 신암교회	함경북도
	5	29	포항 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5	29	동해 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5	29	신암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6	9	휘춘교회 부흥회	북간도
	6	18	경원읍교회	함경북도
	6	23	은성읍교회	함경북도
	6	27	회령읍교회	함경북도
	7	7	무산읍교회	함경북도
	7	14	성진옥정교회 설교(3일간)	함경북도
	8	18	황해도 곡산 시찰지경부사경회(곡산읍교회)	황해도
	8		황해도신암교회 부흥회	황해도
	8	28	황해도 곡산읍교회 부흥회	황해도
	9	19	황해도 전이포교회 부흥회	황해도
	10	16	대구·경북노회 조선선교오십주년희년대부흥회	경상북도
	10		대구 나병원 설교	경상북도
	10		대구 제중원 설교	경상북도
	10		대구 칠성정교회 설교	경상북도
	10	21	남성정 제일교회 설교	경상북도
	10	22	나병원 설교	경상북도
			남산교회 설교	경상북도
			대구부 오교회 연합 부흥회	경상북도
			대구 경북노회 여 부사경회	경상북도
			대구 남성정교회 설교	경상북도
			대구 중앙교회 설교	경상북도
	10	23	대구신정교회 여학생회 설교	경상북도
			남산교회 설교(4일간)	경상북도
			나병원 설교	경상북도
			제중원 설교	경상북도
			칠성정교회 설교	경상북도
			경주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11	24	평남 맹중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935	1	4	진남포 억낭기 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1		진남포 비석리교회 설교	평안남도
	1	14	봉산군 토성면 상성리교회 부흥회	황해도
	1	24	대동군 오유리교회 부흥회	평안남도
	2	13	의산 노회사경회(신의주 제이교회)부흥회	평안남도
	2	21	평남 해면 지경 사경회	평안남도
	3	2	평남 숙천 감산교회	평안남도
1935	5	9	김천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5	17	현풍교회 부흥회(3일간)	경상북도
	5	20	성주교회 부흥회	경상북도
	8	13	벽동 교회에 삼산노회부 사경	평안북도
	8	21	평북 선천군 선천면 월곡동교회 부흥회 인도 중 뇌일혈로 졸도 선천 기독 병원에서 13일간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휴양	평안북도
	11	20	평서 노회부사경회 부흥회 예정기일 마지막날 마지막 축복기도 후 졸도	평안남도

1928년부터 1935년까지 길선주 목사가 평양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인도한 집회는 총 139회이며, 그 중 1934년에 인도한 집회가 50회로 가장 많다. 지역별 현황으로는 북간도 14회, 경상도 29회, 전라도 18회, 평안도 52회, 함경도 8회, 황해도 15회, 그 외 지역 3회로 평안도가 가장 많다.

2. 길선주 목사의 집회가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

1) 개교회의 성장

(1) 장대현교회의 성장

길선주는 1907년 1월 21일부터 1911년까지 진행되었던 사경회 기간 동안에 8번의 설교를 하였고, 사경회가 끝난 후 찾아온 첫 번째 주일인 2월 20일 예배를 인도하였다. 그가 인도한 집회는 성령 강림의 현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회심과 전도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다. 그리하여 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10년 당시, 장대현교회의 교인수는 1,200명이었다.¹⁵³⁾ 이처럼 당대의 대형교회로 우뚝 선 장대현교회는 이미 이전부터 교회 분립을 해오고 있었다. 장대현교회에서 분립된 교회로는 남문밖교회(창903), 동교회(산905), 정현교회(1906), 서문밖교회(창909) 이 있다. 그런데 분립의 시기가 중직자로서 길선주가 사역했던 기간(1898년 장대현교회의 영수, 1902년 장대현교회의 조사, 1907년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평양대부흥운동을 전후하여 이미 길선주의 영향력이 장대현교회의 성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53) 곽안련(郭安連) 편집(編輯), 『장로교회사전회집(長老教會史典彙集)』(미간행 자료).

154) 길진경, 『영계 길선주』, 341-345.

155) 한국컴퓨터선교회 기독교정보검색 http://kcm.kr/dic_view.php?nid=39594. 1907년 길선주 목사가 장대현 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었을 때에는 장대현교회교인 수가 약 2,500명이었다고 한다.

(2) 연동교회의 성장에 기여

1894년, 무어 선교사와 김영옥 조사를 중심으로 연못골(연지동)에서 초가집 한 채로 시작한 연동교회는 1900년, 게일 목사가 부임하고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개종한 양반들이 많이 입교하면서 크게 성장했다. 교인이 늘어남에 따라 1907년, 효제동 4번지에 새 예배당을 세웠는데 이는 자급 정신에 따라 선교회의 도움 없이 자체 현금 6,000여 원으로 이룬 결과였다. 현당 이후 길선주가 인도한 서울 장로교 연합 사경회를 기점으로 하여 양반과 상놈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면서 교인이 1,200명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¹⁵⁶⁾ 연동교회의 놀라운 성장이 1907년에 일어난 것은 1907년 2월 1일 부터 3주간 서울 장로교 연합 사경회가 열렸고, 이에 연동교회가 동참하였기에 연동교회의 성장이 서울 장로교 연합 사경회 이후에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 때, 서울 장로교 연합 사경회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가 연동교회의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평안도 지역의 교회 성장

1910년을 기준으로 한국 장로교의 각 지역별 세례 교인 현황은 평안도 18,743명, 황해도 4,740명, 함경도 1,691명, 경기충청 2,975명, 경상도 5,726명, 전라도 5,499명¹⁵⁷⁾이다. 평안도의 세례교인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지역 인구를 대비할 때 그와 비례하는 수치가 아니다.¹⁵⁸⁾ 물론 지역별 세례 교인의 현황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여 나온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으니 바로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가 담임 목회를 했다는 것과 그가 인도한 집회의 비중이 평양과 평안남북도에서 가장 크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안도 지역에 미친 길선주 목사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표는 1888-1911년까지 도별 장로교회 설립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1907-1911년의 기록을 보더라도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교회 설립 숫자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평안도 지역의 교회 성장을 길선주 목사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가 평안도 지역에서 집회를 인도한 횟수가 확인된 일정으로만 봐도 84회로 같은 시기 그가 인도한 집회 일정의 절반

156)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85.

157)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록; 제 4회 회의록』(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87), 31.

158) 비록 1920년대의 통계이긴 하지만 1920년 당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대구부 포함 211만 2천명, 전국 인구의 22.2%)고, 다음이 전라남도(쌍주군, 제주도 포함 195만 5천명, 전국 인구의 11.3% 차지), 경상남도(부산부 포함), 경기도(경성부 포함) 순이었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는 각각 전국인구의 7.0%와 6.3%를 차지할 뿐이었다. 통계청 광복 이전통계_보도자료(1216)_1, 6. (<http://www.nso.go.kr>).

가량에 해당되며 그 수치는 다른 지역 어느 곳보다도 월등히 많은 양이다. 이는 평안도 지역의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길선주 목사의 직간접 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3) 전국적인 교회 성장

1907년을 전후한 평양대부흥운동과 1909-1910년의 백만인구령운동에서 길선주 목사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물론 이 시기에 전국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성장한 것이지만 평양대부흥과 백만인구령운동에서의 길선주 목사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의 거국적인 교회 성장이 길선주 목사의 집회 인도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그의 집회 일정에서 확인하였다. 특히, 1907년 이후부터 장로교의 당해 학습교인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어가는 것은 평양대부흥과 백만인구령운동에서의 길선주 목사의 활약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의 미국 북장로회 한국 선교회 통계를 통하여, 1906-1907, 1907-1908, 1908-1909의 모든 수치가 이전 기간의 수치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평양대부흥과 백만인구령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전국적으로 집회를 인도하며 한국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주도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다. 이것은 곧 길선주 목사가 전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7: 북장로교 전체 교세 증가율¹⁵⁹⁾

	1903년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	1909년	1910년	1911년
입교	7,107	8,766	11,061	14,353	18,081	24,239	30,377	39,394	46,934
학습	6,468	6,946	8,431	12,161	19,789	24,122	30,605	33,790	35,508
당해학습	2,821	2,469	4,755	8,047	10,027	14,008	12,588	14,507	15,708
전체교인	19,327	24,971	36,554	27,407	56,943	72,968	94,578	119,273	140,470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계(자료: 객안년, 한국 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 456

3. 길선주 목사의 집회, 그 성격과 평가

길선주가 집회를 인도하며 선포했던 설교 횟수는 2만 번을 상회하고, 그가 인도한 집회에 참여한 회중은 9천 5백 만 명으로 추산된다.¹⁶⁰⁾ 이는 당시 인구가 1911년 1,406만 명, 1925년

159) 박용규, 『평양대부흥운동』, 183.

160) 길진경은 길선주 목사의 설교를 들은 회중이 연 3백 만 명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길선주 목사가 부흥의 주역으로 떠올랐을 때부터 1935년 11월 20일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1,902만 명, 1935년 2,189만 명¹⁶¹⁾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실로 엄청난 숫자라 할 수 있다. 그는 1907년부터 1928년까지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로 시무하면서 담당 교회는 물론 전국 교회를 위해 집회를 다녔고, 1928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후에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팔도 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북간도까지 가서 집회를 섬겼다. 이는 당시의 교통수단을 비롯하여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경이로울 정도의 사역일정이다.

길선주가 전한 메시지는 늘 복음에 입각하여 이루어졌고, 설교시에는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전하고자 하는 바를 회중에게 능수능란하게 전달하였다. 그의 집례로 세례를 받은 교인의 수는 3천 여 명에 달하며, 그가 길러낸 교회와 사회의 일꾼은 목사, 장로, 교사, 사회 운동가 등 800여 명에 이른다.¹⁶²⁾

길선주를 두고 부흥운동의 기폭제라 칭했던 알렌의 평가와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부흥운동가 길선주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은 회중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가 집회를 하고 다녀간 교회는 부흥·성장을 하게 되었으니 길선주 목사의 집회는 곧 부흥회요, 그는 탁월한 부흥운동가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161) 통계청광복 이전통계_보도자료(1216)_1, 6. (<http://www.nso.go.kr>).

162) 길진경, 『영계 길선주』, 326.

IV. 설교가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는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는 구약을 30 통독했고,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는 50 이상을 통독했다. 신약을 10 이상 읽었고계 시록은 1만 독을 하였다. 그는 성경을 줄줄 암송하곤 했는데 설교하는 중에도 언제든지 내용에 맞는 적절한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그의 설교에는 늘 생동감과 힘이 넘쳤다. 성경을 능수능란하게 풀어내는 길선주의 설교는 회중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¹⁶³⁾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성경을 주해함에 있어 문자적 해석에 유비적 방법을 조화시켜 성경 말씀을 회중이 알기 쉽도록 이루어져 있다. 즉,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일들을 성경의 교훈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교 안에 녹여 낸 것이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었다.¹⁶⁴⁾

편하설 선교사는 길선주를 “한국 개신교회의 가장 화려하고 위대한 사람이요, 설교자와 전도자로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¹⁶⁵⁾이라 했으며 자신이 목회하고 있던 3,500명의 회중이 있는 장대현교회의 후임으로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길선주를 택하였던 사무엘 마펏은 그를 가리켜 ‘한국의 스피드 전’이라고 칭하기까지 하였다.¹⁶⁶⁾ 게일도 설교자로서의 길선주의 역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한다.

그는 비록 지성적인 경력은 대단하지 않지만, 심령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미묘한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 설교자로서 그는 청중을 웃기는 법을 알고 있다. 사역자로서 그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강철같이 강력하게 붙잡는 법을 안다.¹⁶⁷⁾

길진경은 길선주 목사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그가 2만 번이상의 설교¹⁶⁸⁾를 했으며 그의 설

163)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283.

164)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 설교 길선주』 (서울: 흥성사, 2008), 16-17.

165) Charles F. Bernheisel, “Rev. Kil Sunju,” *The Korea Mission Field* (1936. 2), 30;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6에서 재인용.

166) S. A. Moffett, “An Educated Ministry in Korea,” *The Interior* 38 (1916. 2. 14), 3;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112.

167) James S. Gale, “Elder Keel,”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1907. 7), 494;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152.

168) 송진우는 “조사”에서 길선주 목사가 교직생활 중에 1만 권 회에 달하는 강도를 했

교를 들은 회중의 수가 무려 3,800,000명 이상이라고 기록한다.¹⁶⁹⁾ 그의 설교는 거물급민족 지도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어 다수의 민족 지도자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도 하였다.

조선의 여명시대의 웅변적 鼻祖(비조)로는 아마 吉善宙 翁(길선주 翁)을 잇을 수 없다. 여명시대뿐 아니고 現今(현금)에 있어서도 吉翁(길옹)의 웅변을 濼駕(가)할 자는 없을 줄 안다조 선 기독교계에서 가장 청중을 많이 갖인 연설가로는 吉翁(길옹)뿐일 것이다. 그의 연설에 月南(월남) 선생 兪星濬(유성준) 씨 南崗(남강) 선생 등 거인들이 다 감복되어 신자가 되었고 一夜(일야) 연설에 수백명이 통곡결심하기는 吉善宙 氏(길선주 씨) 辨士上(사상)에서만 볼 것이다.¹⁷⁰⁾

길선주 목사를 향한 당대의 기록을 돌아보면 18세기 영미부흥운동을 주도했던 휘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가 떠오른다.¹⁷¹⁾ 당대의 유명 배우였던 데이비드 게릭(David Garrick, 1717-1779)의 말처럼 휘필드가 “메소포 타미아”라 외쳐도 회중들을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설교자라고 했던 것은 길선주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이다.¹⁷²⁾ 그런 면에서 설교가 “불붙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신학¹⁷³⁾”이라고 했던 로이드 존스의 말은 길선주 목사를 두고 한 말처럼 여겨지기까지 한다.

설교가 길선주 목사의 영향력이 이토록 컸던 데에는 ‘행하는 믿음, 실천 하는 학문,’ ‘언행일치의 신앙’을 외쳤던 그의 말을 먼저 자신의 삶 속에서 구현해 나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는 설교나 연설에서 말만 그럴싸하게 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는 말기계와 뜻도 모르고 흉내만 내는 앵무새라고 비판했다.”¹⁷⁴⁾

본 장에서는 길선주 목사의 설교 가운데 3편 을 분석함으로써 설교가로서 그의 역량을 고찰할 것이며 이어서 설교가 길선주 목사가 당대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지 살펴볼 것이다.

다고 기록하고 있다. 송진우, “조사,” 『신앙생활』 5/1(1936. 1), 93;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8에서 재인용.

169) 길진경, 『영계 길선주』, 326.

170) 주운성, “웅변가의 연설삼천 리” 7/3(1935. 3. 1), 137-140;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8에서 재인용.

171) McDow and Reid, *FireFall: How God Shaped History Through Revivals*, 189;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260에서 재인용. “그의 설교는 성경적이고, 교리적이었으며 감동을 자아냈고 성령의 능력이 수반된 설교였다”는 휘 필드에 대한 맥도와 리드의 평가는 마치 길선주에 대한 평가인 것처럼 보인다.

172) 박용규, 『세계부흥운동사』, 260.

173)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서울: 복 있는 사람, 2010), 151.

174)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13.

1. 길선주 목사의 설교

1) 십자가상 주의 칠언 7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1) 설교문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시 31:5) 하는 시의 예언은 주님의 최후의 성언(聖言)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영혼을 부탁하셨다 함에 대하여 예수의 영혼도 우리 인성과 동일한 영혼이라 하여 예수의 순인론(純人論)을 주장하는 자가 있으나, 이는 오류에 빠진 자입니다.

예수는 인성으로의 육신과 영혼이 있는 완전한 인격이신 동시에, 완전한 신격(神格) 주이십니다. 인격으로 수난하시고, 인생으로 그 혼을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범죄하였는고로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이요, 사람이 범죄하였는고로 인자(人子) 에 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겸(兼) 였고, 남성과 여성이 겸하였었습니다.

그리하여 첫 아담이 남녀의 원인(原人)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시조(始祖)인 것처럼,

둘째 아담이신 예수도 혈통으로 보아 윗과 라합 같은 이방 할머니가 있는즉 이방과

유대인의 구주이시오, 예수께서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순정(純貞)한 사람이시니

예수는 남녀 양성(兩性)이 겸전(兼全)하신 인격이십니다. 그런고로 남자와 여자의 구주로

되시기에 합당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곧 전 인류의 구주이신 예수는

완전한 인격으로서 그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 무리를 용서하시옵소서네” 가 오늘 나와 한가지로 낙원에 있으리라,”

“여인이여, 보시옵소서엘“ 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칠성언(七聲言)으로써 주님은

사람으로서의 최후를 마치셨습니다. 인자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던 대로, 당신이

작정하신 대로, 아버지가 허락하신 대로 십자가상에서 사고(死苦)를 마치셨습니다.

예수는 최후까지 모든 죄인을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형제 자매는 십자가를 우러러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주의 칠언을 들으십시오. 이는 해방의 절규, 구원의 복음, 승리의

포고완 성의 선언인 것입니다.¹⁷⁵⁾

175)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길선주』, 57-59.

(2) 설교 분석

위 설교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상 칠언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주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길선주 목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으로 분류되는 가상칠언에 대하여 모두 설교하였는데¹⁷⁶⁾ 이를 통해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인용한 설교의 내용 가운데 “예 수는 인성으로의 육신과 영혼이 있는 완전한 인격이신 동시에완 전한 신격의 주,”¹⁷⁷⁾ “인격으로 수난하시고, 인생으로 그 혼을 부탁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범죄하였는고로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 없는 것¹⁷⁸⁾이요, 사람이 범죄하였는고로 인자밖에 대속할 수 없는 것¹⁷⁹⁾”이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 부분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기록이다.

또한, 설교문 중간 부분에는 “아담에게 남 성과 여성이 겸하였었습니다”와 “예 수는 남녀 양성이 겸전하신 인격이십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생소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조에 이어 그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담이 남자와 여자를 모두 포함한 인류의 시초였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남녀를 모두 대표하는 분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길선주 목사만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비와 같이 가상 칠언 가운데 일곱 번째 말씀에 대한 길선주 목사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의 원리를 바르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설교에서 독특한 비유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통해 회중의 이해를 돕고자 했던 설교가로서의 세심한 배려와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176)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길선주』, 6.

177) 벌코프,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551. “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가 하나의 인간 인격(human person)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는 내용과 같은 맥락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기서 신격의 주라는 표현은 신학 용어가 당대에는 아직 우리말로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한 신성을 소유한 주라고 해석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듯하다.

178) 벌코프가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필요한 이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와 맥 을 같이 하는 표현이다. 벌코프, 『조직신학(하)』, 548.

179) 벌코프는 그의 조직 신학에서 인간이 범죄했기에 형벌도 인간이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형벌에는 육신과 영혼의 고통이 포함되기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한다. 벌코프, 『조직신학(하)』, 548.

2) 최귀(最貴)한 생명(요한복음 17장 3절)

(1) 설교문

끝없이 넓은 우주에 모든 동물이 생(生)을 좋아하고 사(死)는 싫어하는 것은 천연(天然) 본성이며 생의 본능입니다. 그리하여 생명 있는 모든 동물은 ‘생’에 기뻐하고 ‘사’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생명에 대하여 세 가지 큰 뜻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생명의 가치

1. 생명은 세계를 경이케 함

몇 해 전에 어떤 상업을 경영하는 교우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상점 문전에 도착하자마자 안에서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려 나왔습니다. 상점에 들어가 보니 상인 대여섯 사람이 둘러앉아서 크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웃는 이유를 물어보자, 그중에 한 사람이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상업을 하는데 근일 며칠 동안에 무슨 물건을 사서 판매하다가 수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 과정에서 너무도 우스운 일이 있어서 이와 같이 웃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수만 원을 손해 봤다는 사람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이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무슨 물건을 사서 어떻게 판매했는지 또 그중에 어떤 우스운 일이 잠재(潛)하였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수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담소화락(談笑和樂)을 나누다니, 금전의 가치가 그와 같이 없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를 일어나서 뒷거리 어느 동네 입구에 도달하니 3,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서서 얼굴을 찌푸리고 머리를 흔들며 대경실색(大驚失色)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이상히 여겨 무슨 큰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여 물어보니 그중에 한 사람이 제 손목을 이끌고 전차궤도(電車軌道)로 향하였습니다. 그 곁에 가자 사람의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며, 임리(淋漓)한 사람의 피가 궤도와 티끌을 적시었습니다. 제가 크게 놀라 어찌된 일이나고 묻자 “어떤 노동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전차가 지나갈 때에 궤도를 건너다가 전차에 치어 온몸이 상하여 이와 같이 피를 흘린 것인데, 아마도 그 사람은 절명(絶命)되었을 것이라 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크게 느꼈습니다. 조금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금전 수만 원을 잃어버리고도 담소의 마당을 이루었는데지 금 이 노동자 한 사람이 행사한 데 대하여는 3, 40명이 그 생명을 위하여 슬피하며 안타까워하니, 이 생명의 가치야말로 천하를 가히 움직일 만한 것이었습니다. 천하뿐만 아니라 천상천하를 놀라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유럽 대전쟁 당시에 세계에서 수천억 원의 재산이 탄연(彈煙)으로 변하고 바다 속에 던져 버려 이로 말미암아 세계는 경제공황을 당하게 되고 전 인류는 생활의 곤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큰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인류를 놀라게 할

만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당시에 2,500 명의 피로 유럽 강산을 물들여 놓은 그 사실에 세계 인류가 놀라지 않을 자가 없을 것이요 하늘 에 있는 천천만만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이 유럽 강산을 굽어보실 때에는 반드시 크게 놀라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 복음 15장 절 에 말씀하시기를 죄 인 하나가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 명보다 하늘에서 더욱 기뻐하신다” 하였으니, 2,500만 명의 피 흘린 것을 보신 하늘에서 어찌 놀라지 아니하셨겠습니까?

2.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우리 주께서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온 세계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온 천하의 이(利)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 하신 말씀은 이 세계를 다 얻을지라도 생명만 못하다 하신 말씀입니다.

3. 생명은 최고의 지위를 점령함

조선 격언에 죽은 정승이 산 강아지만 못하다”라고 한 말은 정승이라도 죽고 나면 가치가 없고, 강아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을 멸하는 것은 그 고기를 내가 먹고 내 생명을 보전하려는 목적이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자기의 생명을 희생한 것은 세계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니, 위대한 것은 생명의 힘이며 귀중한 것도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하나입니다. 요한 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이것이니 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 수년 전에 제가 동아일보 2면을 읽다가 크게 놀란 일이 있습니다. 강서읍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모 순사가 소화불량으로 서장에게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 순사가 아내와 12세 된 딸과 6세 된 아들을 데리고 강서산 약수터에 가서 약수를 먹는 동안에, 그의 부인은 매일 두 시나 세 시에 일어나 고요한 밤에 약수로 나아가 새옹에 밥을 지어 가지고 약수대감 앞에 만수향(萬壽香)을 피워 놓고 제사하기를 정성껏 하며 기도하기를 “이 약수를 우리 남편과 아이들이 마시고 몸이 튼튼하여지고 장수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순사도 역시 자기 부인과 같이 약수터로 나가서 정성껏 빌었습니다. 그때는 하절(夏節) 라 어린아이들 누워 자는 방에 모기장을 쳐 주고 전후 방문을 열어 놓고 뒷방에는 촛대에 촛불을 켜 놓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앞문으로 들어와 뒷문으로 나갈 때에 모기장이 바람에 불려 뒷방 촛대에 접촉되었고 모 기장에 불이 붙어 온 집이 화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순사 부부는 약수터에서 제사를 정성껏 하다가 문득

화중(火鐘) 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자기 있는 집에 불이 붙은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본즉 자기들의 아들과 딸은 불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부부는 그 자리에 전이도지(顛而倒之) 대성통곡하여 일대 비극을 연출하였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때 그 부모 되는 자들이 소위 약수 귀신에게 복을 빌지 않았던들 자기네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구할 데 구하지 않고 헛되이 구하였으며,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몰랐으므로 그와 같이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방침

본문을 보니 “영생은 곧 이것이니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을 아옵고 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앎이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침입니다. 우리 는 각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지 혹은 모르는지 더듬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아야만 이 귀중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즉 이 최귀(最貴)한 생명을 얻은 자가 생활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새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형 제여, 이 귀중한 생명을 얻은 후에 영생을 누리시길 원합니다.¹⁸⁰⁾

(2) 설교 분석

본 설교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본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주해하고 그것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설교의 도입부분은 그 분량이 너무 많고 논리적으로도 미흡함이 엿보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화를 들어서 생명의 소중함을 실감나게 표현한 것은 “영생”이라는 개념을 전하기에 앞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좋은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청중이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명의 귀중함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었다고 볼 때 이 예화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길선주 목사는 본 설교에서 생명의 가치를 세 가지 이유(1. 생명은 세계를 경이케 함, 2.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짐, 3. 생명은 최고의 지위를 점령함)를 들어 설명한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예화로 제시하여 생동감을 극대화시키고 회중들이 잘 알고 있는 격언을 인용하여 각각의 이유를 알게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 역시도 설교가로서 탁월한 그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하겠다.

180)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길선주』, 63-70.

그러나 설교 중에 아쉬운 부분도 보이는데 첫째는 “생명의 근원”에서 제시한 예화이고 둘째는 설교의 종결부분이다. “생명의 근원”에서는 동아일보 2면에 실린 기사를 인용(두 자녀를 둔 부모가 약수대감탕 수터 귀신]에 제사하며 기도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을 집에 채워 두고 나왔는데 켜놓은 촛불이 바람에 쓰러져 온 집에 화재가 발생하여 두 자녀가 모두 죽었다는 내용)하고 있는데 생명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데 부모가 귀신을 섬기며 헛된 행동을 했기에 끔찍한 결과가 나왔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너무 극단적인 해석으로 보인다. 이는 아마도 청중의 감성을 자극하여 빠른 변화를 이끌어 내하고자 한 것으로 능한 언변을 통해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웅변가로서의 그의 경험이 투영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또한, 당시는 아직까지 본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주석이 변변치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알레고리컬한 해석의 결과로 보인다.

설교의 종결부분에는 최귀(最貴)한 생명을 얻은 자가 ‘금은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생활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결론은 설교 본문이나 제목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3) 순간득구(瞬間得求): 구원에 필요한 5대 요소(누가복음 23장 39-43절)

(1) 설교문

수년 전에 영국에서 타이타닉이라는 큰 기선을 제조하고 첫 번째 항해를 시험하다가 큰 빙산에 부딪혀 3,000명의 승객을 창파(滄波)에 매장시켰습니다만 일 그 때 한 몇 십분 전이라도 함장이 망원경을 가지고 빙산이 흘러옴을 보았던들 미리 방비하여 서로 접촉되지 않게 하였을 터인데, 이 몇 분의 순간 함장의 불찰로 인하여 3,000명의 인명을 희생시켰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문에서 현상문제 걸기를 차살 을 하려고 한강철교를 향하여 가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까?”하였습니다순… 간의 불찰로 대중을 희생하고 잠깐의 효유로 생명을 구원할 것이니 사람의 생사문제는 장시간을 요할 것이 아니요다 만 일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지금 이 강도가 구원을 얻음이 또한 십자가상 일 순간에 된 일이니 영혼을 구원함도 역시 일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적의 구원이 순간에 이뤄진 것이지만 천고(千古)에 어려운 것이니 곧 통회, 신의, 증거, 소망, 간구의 5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통회(痛悔)

무릇 인간은 그 육신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마음도 극히 잔인하게 되기 쉬움은 아무 소망이 없는 연고입니다. 설령 선을 행한들 누가 자기를 붙들어 주며자 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왼편의 강도는 포악하게도 주를 훼방하며 핍박하였습니다. … 아담의 범죄는 한 ~~원~~ 을 넘지 않았으나 그 화는 수천 년에 유전되었으니 만일 그가 범죄하던 순간에 회개하는 맘이 있었던들 창생(蒼生)에 이와 같이 타락한 지위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구원의 입문은 다만 통회하는 한 길밖에 다시없습니다.

신의

통회할 뿐 아니라 또한 깊이 주를 신봉하였습니다. 말하기를 너 는 이 형벌을 당하되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치 않느냐?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하였으니 이는 확실히 천부를 믿은 것이며, 또한 주의 의를 신봉한 증거입니다. … 이때 도적으로서 주를 보건대 조금도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주께서는 자기보다 더 중한 악형을 당하셨으니 신뢰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늘 그는 이러한 경우에서 깊이 믿고 의지하였으니 얼마나 장한 일입니까? 둘째는 자기의 형편을 보아서 도저히 믿기 어려웠으니, 누구든지 고통을 당할 때에 그 믿음이 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

증거

사람이 지위와 세력이 있을 때에는 그를 칭찬하기가 쉬우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가장 두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장로와 제사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밖에 여러 무리가 다 주를 십자가 위에 달았습니다. … 율과 공포로 휩싸인 이때에 저 도적은 “이 사람의 행함은 의(義) 이 없다”고 확실히 증거하였으니 주를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도 다 달아나고 없는 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이와 같이 정중하고 엄정한 증거를 했을까요? 이 때 한마디 증거가 평상시 백 마디 증거보다 나으니, 이것이 구원의 중대한 요소입니다.

소망

이 사람은 영원한 소망을 가졌으니 주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 고 간구했습니다. 이는 영원광대한 소망입니다. 사람은 곤란을 당할 때 대개 그 소망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무한한 십자가 형벌의 고통 중에서도 큰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소망이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간구

이 사람이 얼마나 간구했는지를 보십시오. 기도에 응하지 아니함이 없고, 간구에 얻지

못함이 없나니 간구는 구원을 얻음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천부를 감동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른편의 강도는 이상의 5대 요소를 가졌습니다. 그는 즉각에서 구원함을 완전히 얻었으니, 예수 께서 그와 함께 낙원에 계실 것을 확실히 허락하셨습니다.¹⁸¹⁾

(2) 설교 분석

설교의 도입부에 소개되고 있는 타이타닉의 침몰 이야기와 ‘자살을 하려고 한강철교를 향하여 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예화는 구원받은 강도에게 있어서 그 짧은 한 순간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게 전달해주고 있다. 또한, 신문에 실린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회중들과의 접촉점을 넓혔다는 점에서도 본 설교의 도입부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론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통회,’ ‘신의증거,’ ‘소망간’ 구’ 라는 영혼 구원함의 5대요소를 소개하는 것은 회중으로 하여금 이어지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지설교¹⁸²⁾의 형식이 엿보인다.

본론에서 5개의 대지로 소개되고 있는 ‘통회,’ ‘신의,’ ‘증거,’ ‘소망간’ 구’는 개혁신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표방하는 구원의 서정¹⁸³⁾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회’와 ‘신의’는 각각 ‘회심’과 ‘신앙’에서의 용어상의 차이로 보이며 ‘증거,’ ‘소망,’ 그리고 ‘간구’는 ‘성화’의 여러 국면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오히려 ‘통회,’ ‘신의,’ ‘증거,’ ‘소망간’ 구’ 라는 5가지 요소를 통하여 구원을 이해한 것은 본문의 내용상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개혁신주의 전통 가운데 구원서정에 대한 논의는 종종 논리 위주의 논박이 지나치게 이어져 성경을 이탈하는 데에까지 이르기도 하는데 본 설교에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¹⁸⁴⁾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설교는 성경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나 지나친 단순화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구원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깊이 있는 해석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설교를 통해 구원에 대한 길선주 목사의 이해가 개혁신학의 범주 안에서 바르게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81)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길선주』, 82-86.

182) 길선주 목사는 현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3대지 설교와는 달리 2대지, 5대지, 심지어는 그 이상의 대지를 가지고도 설교를 했다.

183) 구원서정(타틴어, ordo salutis / 영어, order of salvation)은 개혁신주의 구원론 논의의 전통 가운데 생겨난 용어이며 전통적으로 구원서정은 구원의 각 연속적 순서, 또는 순서적 단계나 국면들을 의미했다. 강웅산,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구원론』(서울: 킹덤북스, 2012), 10.

184) 강웅산,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구원론』, 19.

2. 길선주 목사의 설교 평가

이제까지 살펴본 세 편의 설교 “(1) 십자가상 주의 칠언 7: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2) 귀(最貴)한 생명(요한복음 17장 3절), (3) 순간득구(瞬間得求): 구원에 필요한 5대 요소(누가복음 23장 39-43절)”는 설교가 길선주 목사가 청중을 사로잡는 예화를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기독교론과 구원론에 있어서 길선주 목사의 신학적 소양이 상당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성경 본문을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성령의 능력을 설교 전체에 녹아 들어가도록 설교할 수 있는 탁월함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교 본문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예화 사용, 본문과 어울리지 않는 결론 제시 등 설교가로서 아쉬운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다.

3. 설교가 길선주 목사가 당대에 미친 영향

초기 한국교회는 모든 신학 분야에 있어서 미흡한 상황이었다. 그 중에서도 실천신학은 이제 막 태동한 교회가 체제를 갖추고 교리를 확립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분야였다.

특히 설교학은 평양신학교의 실천신학교수인 콕안련(Charles Allen Clark) 선교사가 번역한 교재인 『강도요령¹⁸⁵⁾(講道要領)』과 그가 지은 『강도학(講道學)』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길선주는 평양신학교 시절 콕안련 선교사에게 설교학을 배우며 설교에 대한 이론을 세웠다.

길선주 목사가 전국을 누비며 설교했던 설교들을 담아내고 있는 설교집 『강대보감(講臺寶鑑)』의 부록에는 “강도법(講道法)”이라고 하는 파트가 삽입되어 있는데 여기엔 그의 설교 이론이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다.¹⁸⁶⁾ 길선주 목사의 강도법(講道法)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하나 정성구 박사는 『강대보감(講臺寶鑑)』이 『강도요령(講道要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하나 길선주의 설교론이 독자적이며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다.¹⁸⁷⁾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설교가 길선주 목사가 당대에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85) 『강도요령』은 미국 장로교 총회장을 역임하고,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쳤던 헤릭 존슨(Herrick Johnson)의 책 *Homiletic Lectures*를 번역한 것이다.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55집, 272-273.

186)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272-273.

187) 정성구, 『韓國教會 說教史』(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144.

첫째,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 초기최초 의 한국인 설교가로서 설교 이론¹⁸⁸⁾을 제시하여 당시 설교자들에게 설교학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는 이제 막 신학교를 마치고 강단에 서게 된 설교자들에게 설교는 무엇이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체계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길선주 목사를 통해 제시된 설교 이론은 한국의 설교가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 결과 한국교회에서는 지금도 주제 설교를 제목 설교라고 일컫는 경향이 있다.¹⁸⁹⁾

셋째, 20세기 초전통적인 종교(유교, 불교, 무속신앙)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못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로 밀려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당시 교회 상황에 맞추어 길선주 목사는 구원론에 중심을 둔 설교를 함으로써 다른 설교자들에게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설교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188) ①설교에 대한 정의와 목적, ②설교를 위한 지침, ③설교의 종류, ④설교의 진행, ⑤설교의 구성 요소.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273-281.

189) 설교학적인 측면에서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는 엄연히 다르나 한국 교회에서 주제 설교가 제목 설교라고 불리는 것은 길선주가 제시한 설교론이 한국 교회에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293.

V. 민족운동가 길선주 목사

길선주 목사의 생애를 돌아보며 우리는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이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길선주 목사의 영향력은 교회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발휘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라는 소망의 빛이 꺼져가는 어두운 시대에 한줄기 빛을 던져주며 사회와 민족을 일깨우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민족운동가로서 길선주 목사의 사역을 그의 계몽운동과 애국운동으로 나누어서 살펴봄으로써 그가 당시 사회와 민족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1. 길선주 목사의 계몽운동

1) 문화 변혁과 생활 개선

장대현교회는 당시 조선사회의 풍습에 따라 세워진 여자들은 올 수 없는 남자들만의 교회였다. 그러나 여성에게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 신자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장대현교회가 창립한 이듬해인 1894년에는 여자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사창골에 건립되었다. 후에 이 사창골교회는 널다리골교회(장대현교회의 전신)가 장대재로 이전될 때 하나로 병합되게 된다.¹⁹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회 인사들의 비판의 소리가 높았다. 이 때 길선주는 교회 책임자로서, 여성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기 위해 복음의 참의미를 전하면서 그와 동시에 계몽적인 설교를 이어갔다.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이시며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한 제단에서 그를 예배하는 것이 참된 교회”라고 가르친 것이다.¹⁹¹⁾

장대현교회는 여전도회가 조직¹⁹²⁾되어 1898년에는 순안에 여전도사를 파송할 정도로 여성에 대한 활발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을 정도로 여성의 지위와 활동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를

190)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228-229. 장대현교회는 장대현 언덕 위에 총공사비 7,000여 원을 들여 72칸 되는 개량 한국식 기와집으로 1900년에 완공되었다. 장대현교회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한국의 첫 대형교회라 할 수 있다.

191)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 50-51.

192) 여전도회(연합 부인 전도회)는 1898년 음력 월 20일(삼일 예배)에 발기되었고 1908년 음력 월 22일 평양성 도당회의 인가를 받아 조직되었다. 이때 회장으로 이신행(李信行), 회원으로 신반석(申盤石), 관선(寬善), 김성신(金誠信) 이 중심축이 되었으며 1908년 당시 회원은 63명이었더니 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03; 길진경, 『영계 길선주』, 110.

가지고 있었는데¹⁹³⁾ 이 중심에는 여신도들의 공동체였던 “부인교회”의 지도자였던 길선주가 있었다.¹⁹⁴⁾

길선주는 남성 중심의 유교 전통을 벗어나 여성 교육을 위해 힘썼다.¹⁹⁵⁾ 그는 1900년 장대현교회가 건축될 때 여성교육을 위한 송현여학교를 송인전 동쪽 언덕에 따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일에 앞장섰으며¹⁹⁶⁾ 또한, 남녀를 철저히 구별하였던 조선의 유교 문화로 인하여 남녀교회가 하나가 된 이후에도 예배당 중간에 설치되어 있는 휘장을 보며 “새 시대를 이끌고 있는 교회”가 “폐 풍의 상징”인 휘장을 걷어 치워야 한다고 역설하며 당회를 설득하였다.¹⁹⁷⁾ 그리하여 1913년 예배당에 설치되어 있던 휘장은 제거되었다.¹⁹⁸⁾

1907년 5월, 평양에서 처음으로 여자 권사, 전도부인, 여자 권사 후보 등 여성 사역자들을 위한 사경회가 열렸다. 이에 평양 시내의 교회와 지방 시찰을 대표하는 106명의 여성들이 사경회에 참여¹⁹⁹⁾하여 교육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여성의 사역이 열리게 되었다. 직접적인 기록은 찾지 못하였으나 평양 시내의 교회와 지방 시찰이 그 대상이었기에 여기서도 길선주의 역할이 상당했을 거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길선주는 남녀에 대한 차별이 지극히 심한 시기에 사회 개량 및 향상에 앞장서서 큰 공헌을 하였다.

길선주는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관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제시하는 일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다. 그는 당시 성인남성들이 쓰던 형식적이고 비활동적인 갓을 벗어 던지고 간편한 중절모자를 썼다.²⁰⁰⁾ 사소한 것이지만 틀에 박혀 있던 생활 방식을 솔선수범하여 개선해 갔던 것이다.

길선주는 신지식·신문물이 들어오는 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답답한 세태를 바라보며 허례허식을 근절하기 위해 과감한 행보를 이어가는데, 장례문화와 결혼문화의 개혁이 바로 그것

193)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 284-285.

194)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03.

195) 길선주 목사는 “왜 여자가 영웅이 되지 못하겠는가”라는 설교에서 “부귀에 음란하지 않고 빈천에 즐거움을 유지하는 여자가 영웅”이라며 여성도 영웅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먼저 환영할 영웅들은 여성들이다”고 설교하였다. 길진경 편, 『길선주 목사 예화 모음』 (서울: 기독교문사협회, 1994), 215-216; 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06에서 재인용.

196) 여성교육의 결과 언문을 배운 여성들이 여성권서인(Bible Women)으로 활동하며 선교활동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허 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07.

197) 길진경, 『영계 길선주』, 220.

198) 『서평양노회사』는 이 때를 1913년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서평양노회 편, 『서평양노회사』, 110; 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105.

199) 옥성득, 『한반도 대부흥』, 313.

200) 길진경, 『영계 길선주』, 220.

이다. 길선주는 폐습 중에 하나였던 제사 허식을 고인에 대한 기념예배로 대체하였고, 성혼시(成婚時) 재정을 낭비하지 말것을 권고했다.²⁰¹⁾ 이 외에도 송채시(送採時奠禮)례시()에는 재산과 생활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울 것을 권면하였다.²⁰²⁾

문화 변혁을 위한 길선주의 노력은 예술분야에서도 나타났다. 그는 조선 사회에서 오랜 세월 천대 받았던 예술을 두고 “우리 민족의 예술을 도외시하거나 심지어 세속시하고서는, 한국 교회는 외국 문화의 모방체가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토착화된 민족종교로서 자립교회를 지향할 수 없다”고 설파하며 예술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 결과 장대현교회에서는 성탄절에 “성극의 밤”을 열어 성경 이야기가 상연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연스럽게 무대 배경을 장식할 성화(聖畵)를 그리는 일이 정기적으로 행해지게 될 정도로 예술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²⁰³⁾

그 밖에도 길선주는 민족 고유의 아악을 교회에 도입하고자 전문가를 초빙하여 예배에 맞는 가락과 가사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다. 민족 고유의 음악을 찬송에 적용하여 영적인 효과를 보려 했던 것이다. 또한, 미국북장로교 선교사 모우리(E. M. Mowry)를 초빙하여 청년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도록 함으로써 교회에서 음악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 되도록 하였다.²⁰⁴⁾

악습을 철폐하고 예술을 장려하는 등 문화를 변혁하는 일에 앞장섰던 길선주 목사는 특히 우리 문화를 중시하였던 그의 사상을 교회 청년들과의 담화에서 고스란히 드러냈다.

지금의 우리 민족은 외국 문화와 우리 문화와의 갈등이 시작된 현실에서 살고 있다. 이는 후진 민족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싸움의 시작인 것이다. 총칼의 승리는 외적인 모든 것을 약탈하고 그 민족을 포로로 하지만 문화 싸움의 패배는 민족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총칼에 망했다. 나라를 잃고 그 민족은 세계에로 흩어졌다. 그러나 자기 문화를 고수한 그 민족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생존했고 국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 민족의 밑뿌리인 민족철학이 살아 있기 때문인 것이다오... 늘 우리는 우리의 민족 문화와 외국 문화와의 갈등이 시작된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다만 일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장차 우리의 문화를 상실하는 예언이 될 것이다. 특히 교회는 흥왕하고 있으나, 우리의 문화를 망각하고 우리의 예술을 도외시한다면 멀지 아니해서 교회가 교회인지 구별할 수 없는 혼잡한

201) 길진경, 『영계 길선주』, 122.

202)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韓國教會史學會誌』 第37輯 (2014), 164.

203) 길진경, 『영계 길선주』, 219.

204) 길진경, 『영계 길선주』, 218-222. 술의 가치와 필요성을 깨달았던 길선주는 자녀들의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어 둘째 아들 진경에게는 조선의 서화와 가무를 배우게 하였고, 셋째 아들 진섭에게는 미술을 가르치기도 했다.

집단으로 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와 국 문화와 우리의 문화의 교차로가 된 오늘의 교회가 외국 문화의 산실인 전체적인 그림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우리 의 문화 위에 꽃을 피우는 기독교가 되는 때 우리 민족의 종교가 될 것이다.²⁰⁵⁾

기독교에 입신하기 전부터 민족 개량과 복지 사회 건설을 위해 애를 썼던 길선주는 신학입문 초기인 1904년에 저술한 『해타론』(懈惰論)을 통하여 성도들을 비롯하여 민중들에게 부지런한 인간상을 정립할 것을 촉구했다.²⁰⁶⁾ 특히 1923년 2월 18일 물산 장려회가 출범하였을 때에는 평양에서 여성들이 통치마를 입을 것을 적극 권하였고, 국산품을 애용하도록 독려했으며 생필품 자가 생산길 싹가축 치기, 잡곡 재배, 휴지 개간을 통한 과수 및 구황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했다.²⁰⁷⁾ 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는 교회 안에 “근검저축식산조합”을 조직하여 교인들의 재정과 노동력을 활용해서 양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양말은 홍인규 집사가 경영하는 포목점에서 판매되었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이 교인 200명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 사용되었다.²⁰⁸⁾

길선주 목사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민족의 존폐와 연관될 수 있는 큰 문제였던 담배와 아편에 대하여 『해타론(懈惰論萬事成就만사성취()』²⁰⁹⁾(1916)에서 그 해악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만사성취(萬事成就)』 13장과 14장에서는 담배와 아편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담배는 독약으로, 그 진액이 뇌에 배어 정신을 흐리고,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하며, 아편 역시 사람을 패망하게 하는 독이 있으며 결국 사람의 몸과 마음을 망하게 한다며 강력하게 금한 것이다.²¹⁰⁾

또한, 길선주 목사는 교인들에게 자녀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못하도록 하였고, 더 나아가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이들이 공장을 그만두도록 강단에서 독려했다. 이 일로 인하여 길선주 목사는 일제로부터 더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다. 왜냐하면 당시 담배는 일제의 주요 수입원 중의 하나였는데 금연운동은 정부에 대항하는 움직임으로 보았기 때문이다.²¹¹⁾ 그러나 길선주

205) 길진경, 『영계 길선주』, 252-253.

206)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164.

207) 길진경, 『영계 길선주』, 250-251.

208) 『기독신보』 1917년 9월 5일.

209) 『만사성취』는 『해타론』(懈惰論)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출간한 책으로 인간이 자신의 소원으로 뜻을 세우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유혹을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기독교대백과사전』(서울: 교문사, 1982), 263.

210) 길선주, 『萬事成就』(서울: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08), #

211) Arthur Judson Brown, *The Korean Conspiracy Case* (New York: n.p., 1912), 8; Carlton Waldo Kendall, *The Truth About Korea* (San Francisco: The Korean National Association, 1919), 2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97에서 재인용.

목사는 일제의 압력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바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면하였다.

뿐만 아니라 길선주는 조선인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던 술에 대해서도 그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종종 논하였다.

지난 8일 오후 8시 반부터 개천장로교 예배당에 열린 금주 강연회는 저번 기생연주회의 비등한 여론의 뒤끝을 이은 것과 주최 단체인 개천 면려청년회의 필사적노력이 헛되지 않아 운집한 청중일천을 세이는 당지초유의 신기록을 지어 기독교신자의 자진퇴장으로 수용인원의 합리화를 꾀하였으나 조수가티 밀리는 청중은 자오이에까지 헤매이어 문자 그대로의 인산인해를 일우운 가운데 ... 길선주씨가 등장하여 음주와 흡연은 패망의 본이라는 연제로 술과 담배의 죄악적 기원으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종 비극상을 지적하고 그의 예리한 “베 스”를 가하면서 약 이 시간의 사자후로 천여회중의 폐부를 육박하여 만흔 깨우침과 일대격동을 주었다는데 더욱 이번 모임에는 주류판매업자와 음식점 영업자 다수청강한 것이 한 이채이엇섯다.²¹²⁾

이처럼 길선주 목사는 민족을 깨우기 위한 일환으로 민족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교회 내에서 획기적인 문화사역을 시행하는 등민족의 변혁을 위해 앞장섰으며, 민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악습을 철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각종 사회사업을 시행하고 수많은 강연을 인도하였다.

2) 교육사업 및 사회사업

대부흥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커다란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배재학당, 이화학당을 위시하여 여러 기독교학교 학생들이 영적 각성을 경험한 것이다. 학생들은 회개와 함께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갖추었고, 민족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는데, 이러한 변화는 자식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 교육, 특히 기독교교육의 중요성이 한국인들 가운데 깊이 자리하게 되었다.²¹³⁾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평양의 여자 성경학교와 신학교, 3월의 장로교 여자사경회, 그리고 4월 에는 평양장로교신학교에까지 그 흐름이 이어졌다특 히 평양대부

212) 길진경, 『영계 길선주』, 311.

213)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엮음, 『평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73-74.

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가 재학하고 있는 평양장로회신학교의 재학생들은 평양대부흥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마침내 11월 21일 화요일, 평양신학교 개강 사경회에 놀라운 영적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²¹⁴⁾

평양대부흥운동 이후 개성의 남감리교 선교회가 운영하는 어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늘어난 학생을 학교가 수용할 수 없었고, 1906년에 설립된 평양의 숭실학교에서는 부흥기간에 급증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현안이 되었다.²¹⁵⁾ 평양의 숭실중학교와 숭실대학의 교장 베어드의 보고에 의하면 1907년 11월을 기준으로 신입생 255명을 받아 전교생이 378명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작년의 160명과 비교할 때 무려 218명이나 늘어난 숫자였다.²¹⁶⁾

표 8: 부흥운동 기간 평양 지역 학교의 증가²¹⁷⁾

	1902년	1905년	1907년
학 교 수	35	62	106
교 사	35	64	121
학 생	592	1,802	2,583
자립하는 학교 수	30	60	106

자료: Annual Report, PCUSA(1907)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독교학교의 급성장을 이룬 곳은 다름 아닌 평양이었다. 평양에서는 1902-1905년 사이에 기독교학교가 3개에서 106개로 증가하였으며 학생수는 592명에서 2,583명으로 급증했다.

물론, 대부흥운동기간 동안 기독교학교가 급증할 수 있었던 데에는 선교 초기부터 강조되었던 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신지식, 신문물을 바라보는 민중들의 기대감 증가, 그리고 영적 각성을 경험한 이들의 배움을 향한 열망이 커져갔던 것이 조화롭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독 대부흥의 시기에 학교가 급증했다는 것은 부흥이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를 확인하기에 충분하다. 또한, 기독교학교가 설립되면서 여성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었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여성들의 지위를 신장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²¹⁸⁾

21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97-898.

215)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78.

216) W. M. Baird, “Pyeng Yang College and Academy,” KMF III: 11 (Nov., 1907), 174-176;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79에서 재인용.

217)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88에서 재인용.

218)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96.

1907년 대부흥 이후 선천지역에서도 학생들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기독교학교가 103개로 늘어났고, 남녀 소학교가 학생들로 가득했다. *Within The Gate*에서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한국을 휩쓸고 있던 그해 믿어지지 않는 숫자의 학생으로 신학교가 설립되었다고²¹⁹⁾”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루 생각해 보았을 때 앞서 언급했던 현상들은 모두 길선주가 펼친 사역과 그에 의하여 주도된 사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학교 설립이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자 이에 놀란 스왈튼은 1907년 7월 22일에 미 선교부 아더 브라운(Arthur J. Brown) 총무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단히 놀라운 수의 학교가 오래 설립되었습니다. 내가 맡은 선교구에 서만 지난해 16개 학교가 시작되었으며 전체의 반 이상을 내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합한 교사들을 공급하는 문제는 시급한 사항입니다. 대학과 연계된 단기 정규 과정의 문제가 선교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대학과 중학교, 그리고 정규 사역뿐만 아니라 신학교와 사경회 사역이 점점 더 많은 우리의 관심을 요하고 있습니다. 금년 가을, 선교부가 한국으로부터 많은 지원 요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907년 10월보통학교 교를 제외한 평양 학생들의 수치는 여학교 약 130명, 평양 숭실중학교 대학에 약 400명, 총 5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구 선교부가 운영하는 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였다. 대구중학교는 개교 1년 만에 48명이 재학 중일 정도로 성장하였고, 대구 동부 선교구에는 5개의 보통학교가 대구 극동과 남부 선교구에는 1개의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계속하여 개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길선주 목사가 백만인구령운동의 일환으로 대구의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던 것과 그 이후에도 대구지역에서 수차례 부흥회와 집회를 인도하며 대구 지역의 교회에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부흥은 기독교대학 설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데 그 결과 여러 성도들의 후원²²⁰⁾에

219) Charles A. Shauer, ed., *Within The Gate*, 92;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79에서 재인용.

220) 『그리스도 신문권』 10권 29호, 1906년 11월 19일;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151-152에서 재인용. 교회통신_평양내신 길 장로음력 11월 5일에 이곳에서 대학당(대학교)을 설립할 일을 의논하려고 장대재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절차를 행하는데 찬미하고 기도한 후에 방 목사 연설하고 ... 연설한 후에 연보(헌금)를 하는데 신화 수백 원짜리 전답을 바친 사람이 육칠 인이 되고 혹 칠팔 백 원짜리 집도 바친이도 있고 매년 신화 오원씩 (작정한 이도) 많고 매일 십 전씩 세상 떠나는 날 까지 내기로 작정한 이도 많고, 재물을 바친 이도 있고, 주초 돌 바친 이도 있고, 교의를 바친 이도 있고, 시계를 바친 이도 있고, 대못을 여러 근 바친 이도 있고 몸으로 품삯을 바친 이도 있고 혹 신화 사오십 원, 일, 이삼십 원 바친 이도 많고, 자매들은 은퇴와 은지환(은반지)과 은장도 바친 이도 많사오니, 그 날

힘입어 평양숭실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²²¹⁾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교하였다. 대부흥의 여파가 한반도를 휩쓸고 있을 무렵 예 『수교 신보』에 소학교 교육의 절실한 요청에 대한 글이 실렸다.

소학교육(小學校育)의 대지는 지혜를 여니게 하며 덕을 밝히게 함과 아히들이 건강함을 보전하나니 이같이 교육함으로 몸을 닦고 업을 일우게 한즉 능히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함을 생각하여 나라에 부강의 기초가 될지라. 이러므로 문명한 나라에는 면시 고을과 궁벽한 지방까지 다 학교를 설립한지라. 근일에 우리나라에도 소학교가 각처에 만히 있으니 자녀들을 만히 학교에 보내여 나라를 흥황하는 기초를 굳게 함이 올토다. 또한 우리나라도 각 지방에 학교를 더 만히 설립하고 교육을 힘쓸지니 부모 된 자 맛당히 공부식혀 나라 문명의 기초가 되게 할지니라.²²²⁾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하나 같이 교육이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민족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은 물론 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역량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자녀 교육이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가정과 민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다.²²³⁾

길선주 역시 민족을 깨우고 살리는 길로 복음과 함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는 영수가 된 후 교회의 자립과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 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려 4가지나 된다.

- 1) 시대적 교육을 위해서 기독교 주간 학교를 설립하여 지도자를 양성할 것.
- 2) 극빈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야간 학교를 설립할 것.
- 3) 남녀 및 성인 야간 학교를 설립해서 한글 교육을 적극 추진할 것.
- 4) 교인의 성경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기간 성경 야학과 계절 사경회를 개최할 것.

주를 위하여 여러 형제자매가 열심 쓰는 것을 가히 알 바로소이다. 당일 연보 낸 것이 신화사천 수삼 백 원이옵고 또 남북 평안도와 황해도 각처 교회에서도 이같이 열심히 할 모양이오니 우리나라 대학교가 장차 잘 될 줄을 믿사온즉 여러 형제자매들은 대학교를 위하여 열심 기도하시기를 바라나이다.

221)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81.

222) “소학교육의 요지,” 『예수교 신보』 1908년 11월 15일, 198;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75에서 재인용.

223)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75.

그 밖에 교육 사업과 문맹 퇴치 사업을 위해서 당분간 교회당을 개방할 것.²²⁴⁾

5가지의 전도 사업과 함께 세워진 이 계획은 만장일치로 가결된다. 그리하여 1898년, 교회당 건물에 학생을 모집하여 본격적인 교육 사업이 시작된다. 기존의 서당 형태에서 조금 발전된 형태의 이 학교는 특별한 이름을 짓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에게 ‘혜수 학당’이라고 불렸고,²²⁵⁾ 후에 이것이 승덕(崇德) 교와 승현(崇賢) 교로 발전되었다.²²⁶⁾ 길선주는 10년 동안 승현학교의 이사장으로 섬겼으며, 승실학 교 이사로도 활동하였다.²²⁷⁾

길선주가 장대현교회 내에서 펼친 교육사업을 간단히 정리²²⁸⁾하면 아래와 같다.

표 9: 장대현교회에서 펼친 길선주 목사의 교육사업

일 시	사 업 내 용
1908년 3월 27	평양성 내 교회연합에서 장현소학교의 회장으로 길선주를 임명함.
1914년 6월 29	교회 봉사 일꾼을 양성하기 위한 청년회 창립
1913년	주일 소아반을 주일 소아회로 변경, 감독: 길선주
1915년	소아회 임원을 개선, 회장: 길선주
1916년 1월 27	주일학교반우회를 청년전도회로 변경, 감독위원: 길선주 외 2인
1916년 4월 21	주일소아회를 소아주일학교로 변경, 교장: 길선주
1920년 12월 21	여자청년회를 조직, 고문: 길선주

민족 계몽을 위하여 앞장섰던 길선주는 교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사역의 범위를 확장하여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성 내의 각 교회가 펼친 연합 사역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11월 7일에 평양성 각 교회가 양로고아원을 설립하고 길선주를 회장으로 선정하고 본교회 주일 소아반에서 다년간 저축한 금 수백량을 양로고아회와 제주 전도사업에 보용하다.²²⁹⁾

또한, 1919년 1월 25 에는 평양 시내에 있는 각 교회의 근로자 대표들이 평양기독교 노동전도회를 창설하였는데, 『서평양노회사』에서는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길선주 목사

224) 길진경, 『영계 길선주』, 101.

225) 길진경, 『영계 길선주』, 102.

226) 김인서, “영계선생소전 속,” 『김인서저작전집 5』 (서울: 신망애사회, 1974), 78; 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91에서 재인용.

227)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92.

228) 강규찬, 김선두변 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사기』, 33, 36, 38, 39, 43.

229) 강규찬, 김선두변 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사기』, 32.

라고 언급하고 있다.²³⁰⁾ 그는 교회를 넘어 사회를 섬기는 일에 적극 동참하여 지역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이다.

1910년, 전국적으로 백만인구령운동이 한창 펼쳐질 무렵 근대식 학교 설립 현황을 살펴보면 평안남도 지역에 가장 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0: 學部에서 調査한 全國 學校 數(1910年 7月 1日 現在)²³¹⁾

도 별	종 별	관공립	준공립	사립학교			합계
				비종교	종교	계	
한 성 부		18	1	71	23	94	113
경 기		7	12	139	44	183	202
충 북		2	4	40	7	47	53
충 남		4	3	69	17	86	93
전 북		6	2	45	30	75	83
전 남		7	7	33	7	40	54
경 북		5	4	69	72	141	150
경 남		9	4	81	17	98	110
황 해		2	7	102	149	251	260
평 남		5	6	162	255	417	428
평 북		5	5	252	115	367	377
강 원		4	5	33	4	37	46
합 남		5	9	174	15	189	203
합 북		3	4	57		57	64
계		82	73	1,327	755	2,082	2,237

사립학교는 평안남북도와 황해도, 함경남도 등 북한 지방이 경기도를 제외한 남한 지방보다 월등하게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남한 지방은 유교적 전통이 깊이 박혀 있어 한문 서당에 의한 교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 2,082 중 외국 선교회 계통의 학교는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로 총 775에 달하며 이들 학교 중 절반정도가 관서 지방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³²⁾ 그러나 모든 지역 가운데 평안남도의 종교 사립학교의 수가 여타의 지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을 눈 여겨 보아야 한다. 평안남도는 평양이 속해 있는 지역으로 부흥의 중심지이고, 그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가 있었다. 그는 1898년 장대

230) 대한예수교장로회, 서평양노회 편, 『서평양노회사』, 447-448;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97. 『서평양노회사』에서는 평양기독교 노동전도회가 무산계급에 속한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기독교인들로서의 사명감을 완수하도록 했으며 이 일을 주도한 길선주를 높이 평가한다.

231)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 『숭실대학교 90년사』(서울숭실 대학교 출판부, 1995), 39.

232) 숭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 『숭실대학교 90년사』, 39.

현교회의 영수시절부터 교회 안팎으로 활발한 교육 사역을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1907년과 1910년을 전후로 하여 부흥운동을 주도하며 교육사업을 활발하게 이끌어왔다. 따라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평안남도 지역의 학교 현황은 길선주 목사의 영향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교육 사역을 위한 길선주 목사의 노력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와 조선 전체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인간의 실존을 ‘야만인과 문명인’이라는 구도로 조망²³³⁾한 길선주 목사는 그 자신의 사상을 실현하고자 교회를 넘어 사회로 뻗어나가 체계적인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외 계층을 위하여 야학을 설립하였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설립하는 데에 앞장섰으며 일터의 현장에서도 노동자들이 복음과 더불어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회사업을 펼침으로써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

2. 길선주 목사의 애국운동

조선 말기, 국운이 기울어가고 있을 때에 다시 한 번 나라를 일으키고자 위정척사파(衛正斥邪派)와 동도서기파(東道西器派), 그리고 개화파(開化派)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각 진영은 침예하게 대립하였고, 힘을 모으지 못한 세 진영 모두 안타깝게도 쓰러져 가는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때에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고, 1895년의 명성황후의 시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선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 간의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놓여졌으며 1905년에는 일제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조선이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가는 한일병탄이라는 민족적 수난을 겪게 되었다.²³⁴⁾

위기에 위기를 거듭하던 이 민족에게 소망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위기를 만난 민족의 지도자들과 민중들은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을 수용한 이들은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국권의 회복을 위한 비전을 품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더불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애국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했다.²³⁵⁾ 여기에는 길선주 목사도 예외가 아니었다.

민족적 슬픔의 날을 앞두고 있던 1910년, 8월 22일-27일까지 진관사로 알려진 서울 북부에 위치한, 한 오래된 불교 사찰에서 제 1회 YMCA 학생 사경회가 열렸다.²³⁶⁾ 한일병탄을 앞두고

233)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171.

234)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795.

235)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802-804.

개최된 이 사경회는 일제의 침략 앞에 민족의 결속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최된 귀한 집회였다. 이 중요한 일에 길선주 목사는 여러 선교사들과 한국인 지도자들과 함께 젊은이들을 일깨우며 소망을 심어주는 민족적인 큰일에 동참하였다.²³⁷⁾ 일제의 탄압속에 진행된 전국의 10개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들의 모임은 힘을 잃고 쓰러져가는 민족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집회였기에 길선주 목사는 이 집회를 통하여 미션 스쿨에서 인정받은 탁월한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고자 적극 참여한 것이다.

길선주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인 1898년독립협회²³⁸⁾ 평양지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족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²³⁹⁾ 길선주는 안창호를 비롯하여 자신과 함께 널다리교회 평신도 지도자로 섬기던 김종섭, 한석진을 포함한 17명과 지회를 설립하였고, 평양지회의 사법부장의 직책을 맡았다. 길선주는 1898년 9월 10일, 대동강변에서 개최된 평양지회 주관 민중대회에서 안창호와 함께 연사로 나서 정치연설을 했다.²⁴⁰⁾ 그가 연사로 나섰다는 것은 이미 길선주의 식견과 언변이 공동체 내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민족운동가로서의 길선주의 영향력이 민족 지도자들과 대등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한국이 일본에 합병되던 1910년 8월 26일, 길선주 목사는 교회에서 계양⁴¹⁾하던 태극기를 교회당 강당 위 천정에 숨겨보관했다태극기를 곱게 싨한지 안에는 “이 국기는 잃었던 나라를 회복하고 자주 독립하는 그날에 계양하기 위해서 여기에 비밀리 보관하였다”²⁴²⁾는 쪽지도 함께 넣었다.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은 목사로서 애국운동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교회가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그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236) Brockman, “Korea’s First YMCA Student Conference,” KMF VII : 10 (Oct., 1910): 256-25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55에서 재인용.

237)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955-956.

238) 慎鏞廈, 『獨立協會研究』(潮閣, 1979), 81. 獨立協會는 19世紀末 列強의 侵略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自主獨立이 훼손당하고 民族的 危機가 組成되었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自主民權自強 運動을 전개하여 衆의 힘으로 民族이 當面한 課製를 해결하고 民族的 危機를 打開하여 自主獨立社會지키려고 하여 만든 團體이다. 김수진, 『한국 장로교 총회 창립 100년사 1912-2012』(서울홍성사, 2012), 146. 독립협회는 조선의 주권이 침탈되는 비극적인 상황과 이와 더불어 조선이 자주국가임을 온 백성에게 알리기 위해 1896년 4월 『독립신문』을 창간했다. 『독립신문』을 통해 수많은 민중들은 민족이 있어야 나라가 존 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구국운동에 앞다투어 헌신했다.

239)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의 민족주의,” 『선교신학』 제13집, 157-176. 160, 162

240) 『독립신문』 1898년 9월 13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9월 28일.

241) 1895년부터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에서는 주일이나 성탄절 같은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마다 태극기를 계양하는 관습이 있었다.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의 민족주의,” 163.

242) 길진경, 『영계 길선주』, 246-247.

1919년거 사를 한참 준비하던 2월의 어느 날, 길선주 목사의 사택에 장대현교회 부인 전도회와 평양성 연합 부인 전도회 임원들이 새해 전도 계획에 대한 지도를 받고자 찾아왔다. 이에 길선주 목사는 전도 전략과 방향에 대하여 지도해 주는 한편, 그들에게 전 민족이 참여하는 독립운동이 곧 시작될 것이라 말하며 다른 전도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두라고 전했다. 또한, 이곳에 와서 태극기 수천 장을 만드는 작업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다.²⁴³⁾ 이와 같이 장대현 교회 성도들은 길선주 목사를 위시하여 민족을 위한 독립운동에 적극 동참하였다. 당회장인 길선주 목사가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중에 기독교 측대표격²⁴⁴⁾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기에 그와 관련하여 장대현교회의 중직자였던 이덕환,윤원삼 도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다.²⁴⁵⁾ 그러나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투옥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국운동에 앞장서는 길선주 목사의 영향을 받은 교회 중직자들의 음양으로의 협조가 있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민족대표들은 인사동의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다.²⁴⁶⁾ 파고다 공원에서는 비밀리에 만든 태극기가 휘날렸고,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는 군중의 함성이 서울 전역에 가득했다. 같은 시간에 3·1 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평양, 진남포, 안주와 의주, 선천, 정주 등 전국 각처의 수많은 지역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고 독립을 염원하는 이들의 만세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다.²⁴⁷⁾ 그러나 독립운동의 현장에 길선주는 자리하지 않았다. 그는 2월 말, 장연읍 교회에서 사경회를 인도하기로 약조하였기 때문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떠났고, 사경회 후에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지만 이미 거사가 다 끝나고 난 뒤였던 것이다. 비록 그가 서울역에서 “자신이 독립 선언서에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서명한 길선주”라고 밝히며 자수하였다고는 하나 기독교의 대표적인 그가 사경회 일정을 변경하지 않고 거사에 참석하지 않은 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당시 길선주 목사는 안질로 인해 시력을 많이 잃은 상태인데다가 거사 현장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어 체포된 32인 중 유일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런 연유로 인하여 길선주 목사는 민족대표 33인으로 3.1운동에 참여하고도 독립유공자 선정에서 제외되었

243) 길진경, 『영계 길선주』, 271. 이에 부인 전도회 회원 5-6명이 길선주 목사의 사택에 와서 비밀리에 태극기를 만들었다.

244) 이종률, 『3·1운동과 민족의 함성』(서울: 인문당, 1984), 17-18. 민족대표 33인의 기명 순위에 있어서는 손병희(원 도교 대표), 길선주(장로교 대표), 이필주(감 리교 대표), 백용성(불교 대표)의 이름을 앞에 쓰고 나머지 29명은 가나다 순으로 서명하였다.

245)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서울: 소망사, 1997), 284-285.

246) 한우근, 『한국통사』(서울: 乙酉文化社, 1994), 528;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67에서 재인용.

247) Kendall, *The Truth About Korea*(San Francisco : 1919), 28;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67에서 재인용.

다.²⁴⁸⁾

체포된 길선주 목사는 구금 후에 있었던 취조와 재판의 과정에서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후회하는 발언을 남긴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오직 종교운동에만 전념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의 말과 같이 길선주 목사는 이후 정치 문제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집회와 부흥회를 인도하는 일에 전념한다.²⁴⁹⁾

3. 길선주 목사의 민족 운동, 그 성격과 평가

첫째, 길선주 목사는 교회의 성도들 나아가 민족이 갖고 있는 독립을 향한 소망을 집약하여 이끌어냈다. 그는 애국심이 강한 장대현 교인들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태극기를 제작하며 3.1 운동을 준비하였으며, 파송된 전도자들에게 거사를 전달함으로써 한반도 전역이 네트워크가 되어 독립운동을 펼쳐 갈 수 있도록 지도했다. 길선주 목사를 통해 교인들은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할 수 있었고, 자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헌신적으로 섬길 수 있었다.

둘째, 길선주 목사는 민족 운동을 펼침으로써 종교를 초월하여 민족이 하나라는 정체성을 세워 주었다.²⁵⁰⁾ 종교와 신분, 남녀노소의 장벽을 넘어 교회와 민족이 일치 단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민족운동을 이끌어 가는 중에 보여준 것이다. 그리하여 길선주 목사는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이 한데 뭉치면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줌과 동시에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셋째, 길선주 목사는 민족 운동을 통하여 기독교가 민족들의 삶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 사무엘 마펫(Samuel Hugh Moffett)이 지적한 것처럼 3.1운동은 “교회를 근절”시키기보다 “오히려 교회가 새로운 성장기로 접어들도록 인도했다.”²⁵¹⁾ 3.1운동 이후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신자들의 시각이 180도 달라졌다.²⁵²⁾ 기독교의 영향력이 교회를 넘어 사회 전반에

248) 그러나 길선주가 1년 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2009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유영대, 『국민일보』 2009년 8월 12일. “고 길선주 목사 90년 만에 애국지사 되다.”

249) 한편, 한국 북장로교 선교회는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애매한 불편중립주의”를 지지한다고 1908년의 보고서에서 밝혔다. 즉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이것이 예수님 자신이 보여 주신 본보기며 선교회가 오랫동안 수용해 온 정책이었다”고 확신한 그들의 성경 해석에서 나온 것이었다.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CUSA, Vol. I. 1884-1934, 499;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37에서 재인용.

25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76.

251) Samuel Hugh Moffett, *The Christians of Korea* (New York: Friendship Press, 1962), 70;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37에서 재인용.

긍정적인 측면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두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동참하는 길선주 목사의 민족 운동은 이처럼, 교회가 대중들에게로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다.

넷째, 3.1 운동 이후 길선주 목사의 입장은 한국 북장로교 선교회의 입장²⁵³⁾과 같이 정치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변하였다. 길선주 목사는 105인 사건과 3.1운동 이전까지만 해도 정치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105인 사건으로 인하여 맏아들 길진형을 잃고²⁵⁴⁾, 또 그 자신도 민족대표 33인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유로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치 참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후 길선주 목사의 사역에서 민족 운동은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그가 감옥에서 확립한 말세신앙에 따라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운 시기에 세상에서 분투하기보다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제의 탄압을 두려워한 데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목사로서 나라와 민족에 더 도움이 사역이 무엇인지 고심한 끝에 나온 변화라고 볼수도 있겠다.

252) “조선 통치와 기독교,” 김승태 엮음, 『일제 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 편 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소, 1996), 142;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37에서 재인용.

253) 코리아 리뷰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선교회는 한국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간섭하지 않았다.” Rhodes, ed.,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CUSA, Vol. I. 1884-1934, 498;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37에서 재인용.

254) 길진형은 고문으로 인하여 부러진 늑골이 폐와 심장 사이에 끼게 되어 미국으로 건너가 4년에 걸쳐 치료를 받으며 휴양을 하였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귀국한지 3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길진경, 『영계 길선주』, 241.

VI. 결론

길선주는 교육을 중시하는 집안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문학적인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수난, 가정과 자신에게 닥친 여러 어려움은 그를 선도의 길로 자연스레 인도하였다. 하지만 선도의 한계를 체감한 길선주는 기독교로의 회심을 통해 다시 한 번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 장대현교회의 담임목사가 되어 그 부흥운동을 이끌어 간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역을 펼친 길선주 목사는 그와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민족운동을 펼친다. 그러나 3.1운동에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길선주는 옥고를 겪게 되고 이후 그의 사역은 교회 안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길선주 목사의 생애를 ‘1. 출생부터 선도에 매진하기까지, 2. 회심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3. 부흥운동가로부터 민족운동가에 이르기까지, 4. 옥중생활로부터 마지막 눈감는 날까지’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그의 인생의 전환점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가 걸어온 삶의 여정과 그의 다양한 사역이 나라와 민족, 교회 가운데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역동적으로 드러났다. 영혼구원을 향한 뜨거운 열망, 조국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민족애, 그리고 성경 말씀에 천착한 그의 올곧은 모습은 역사에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하였던 평양대 부흥운동과 백만인구령운동 가운데 아름답게 녹아졌던 것이다.

길선주 목사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집회와 부흥회를 인도하며 침체되었던 교회를 깨웠고, 그의 설교를 들은 수많은 회중들은 회심과 함께 어려운 시대에 소망을 품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길선주 목사는 교회를 넘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적으로 섬겼다. 지금까지 살펴본 길선주 목사의 사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그는 부흥운동가로서 수많은 집회와 부흥회를 인도하며 평양과 서울, 그리고 한반도 전역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깨우는 일에 헌신했다. 은퇴 후에도 은퇴하기 전과 같은 왕성한 활동을 보이며 변함없이 한국교회를 섬긴 그의 족적은 장대현교회의 성장과 평안도 지역을 비롯한 한국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둘째, 그는 설교가로서 수많은 회중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다. 설교가로서 탁월한 은사를 소유한 그는 조선 선교 초기, 성경의 주해와 설교의 방식에 있어서 부족했던 당시 설교자들에게 설교의 기초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히 그의 복음 전도 설교가 대다수의 설교자들에게 도전이 되어 부흥하는 한국교회, 밀려오는 신자들을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셋째, 그는 민족운동가로서 일제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족을 섬겼다. 그가 앞장서서 펼친 계몽운동과 애국운동은 교회를 넘어 민족과 사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변화와 회복을 추구하는 그의 중심 사상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이 조화롭게 나타난 결과였다. 비록 3.1운동 이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의 사역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지만 말세 신앙을 힘써 전파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민족으로 하여금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세워주었다. 이것은 그가 또 다른 차원에서 펼쳐간 민족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길선주 목사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부흥운동가요, 무수한 집회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설교가였으며, 일제 강점기라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민족을 위한 운동에 앞장섰던 민족운동가였다.

길선주 목사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부흥운동가로, 또 설교자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민족운동가로서의 사역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선교 초기, 기독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물론, 자고 있던 민족과 사회를 깨우고 소망이 없던 이들에게 소망을 주며 지속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끌어갔던 것처럼 오늘 날에도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길 소망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인생을 드리며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로 헌신적으로 섬겼던 길선주 목사와 같이 또 다른 부흥운동가, 설교가, 민족운동가가 나오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길선주. 『萬事成就』. 서울 : 한국고등신학연구원, 2008.
- 길진경. 『길선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대한예수교 장로회. 『독노회록; 제 4회 회의록』.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1987.

단행본

- 『기독교대백과사전』. 서울: 교문사, 1982.
- 강규찬, 김선두, 변인서. 『평양노회 지경 각 교회사기』. 이교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3.
- 강용산. 『성경신학적 조직신학: 구원론』. 서울: 킹덤북스, 2012.
- 길진경. 『길선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길진경. 『영계 길선주』. 서울: 종로서적, 1980.
- 길진경 편. 『길선주 목사 예화 모음』. 서울: 기독교문사, 1994.
- 김수진차중 순. 정성한, 임희국탁 지일.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리더십』. 서울: 킴란출판사, 2010.
- 김수진. 『한국 장로교 총회 창립 100년사 1912-2012』. 서울: 흥 성사, 2012.
-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와 설교자』. 서울: 북 있는 사람, 2010.
- 박명수. 『한국교회부흥운동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3.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1 1784-191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2 1910-196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6(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6.)
- _____. 『평양대부흥운동』.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7.
- _____. 『세계부흥운동사』.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 승실대학교 90년사 편찬위원회 편집. 『승실대학교 90년사』. 서울: 승실대학교 출판부, 1995.

- 愼鋪廈. 『獨立協會研究』. 一潮閣, 1979.
- 육성득. 『한반도 대부흥』. 서울: 홍성사, 2009.
- 이억주. 『1884-1945 한국교회사』. 서울: 도서출판 세울, 2010.
- 이영현. 『한국기독교사』. 서울: 콜디아사, 1992.
- 이종률. 『3·1운동과 민족의 함성』. 서울: 인문당, 1984.
- 이찬영. 『사건으로 본 한국기독교교회사 400장면 <상> 1630-1945』. 서울: 소망사, 1997.
- 장로회신학대학교 편. 『한국 교회 대부흥 운동 1903-1908』.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7.
- 정성구. 『韓國教會 說教史』.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2000.
- 차재명 편조현. 『예수교장로회사기 上』. 이교남 역. 서울: 한국기독교사연구소, 2014.
- 한영제 편. 『한국 기독교 인물 100년』. 서울: 기독교문사, 1988.
- 허호익. 『길선주 목사의 목회와 신학사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Gale, James S. *Korea in Transition*. New York: Laymen's Missionary Movement, 1909.
- KIATS 엮음. 『한국 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길선주』. 서울: 홍성사, 2008.
- Louis Berkhof. 『조직신학(하)』.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터, 2004.

논문 및 학술지

- 박용규. “대부흥운동이 기독교학교 설립에 끼친 영향.”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엮음, 『양대부흥운동과 기독교학교』. 서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2007.
- 백종구. “영계 길선주 목사(1869-1935)의 민족주의.” 『선교신학』 제13집.
- 서정민. “한국교회 초기 대 부흥운동에서 길선주의 역할.” 『韓國教會史學會誌』 第 21輯 (2007).
- 안수강. “길선주의 성화론 연구.” 『韓國教會史學會誌』 第37輯 (2014).
- 육성득. “평양 대부흥운동과 길선주 영성의 도교적 영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25집 (200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현웅. “길선주 목사의 설교론과 설교에 관한 분석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제55집.
- 장병일. “부흥운동의 횃불-길선주 목사” 『기독교사상』 10(11). 1966. 대한기독교서회.

언론매체

유영대. “고 길선주 목사 90년 만에 애국지사 되다.” 『국민일보』 2009년 8월 12일.

통계자료

통계청광복 이전통계_보도자료(1216)_1, 6. (<http://www.nso.go.kr>).

인터넷자료

<한국컴퓨터선교회>, ‘평양장대현교회’